2018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

일시

2018.10.30(화)
13:00~16:00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 신양관
국제회의실(4동 30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일정표

개회사 (13:00~13:10) 임경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제1부 조사결과 발표] 13:10~14:20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발표 1 **북한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최경희 ((사)샌드연구소)

발표 2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김일한 (동국대 DMZ 평화센터)

발표 3 **북한 사회보장 실태의 변화**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4 **북한주민 의식조사: 통일인식**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5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문인철 (서울연구원)

발표 6 **북한 실태 조사**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표 7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발표 8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제2부 패널토론] 14:40~16:00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

사회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
패널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주승현 (인천대학교)
홍제환 (통일연구원)

목차

[조사연구 개요] — 2018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 9

[발표1] — 북한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21
북한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요약) 29
: 최경희 ((사)샌드연구소)

[발표2]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37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요약) 53
: 김일한 (동국대 DMZ 평화센터)

[발표3] — 북한 사회보장 실태의 변화 61
북한 사회보장 실태의 변화(요약) 66
: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4] — 북한주민 의식조사: 통일인식 73
북한주민 의식조사: 통일인식(요약) 80
: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5] —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9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요약) 101
: 문인철 (서울연구원)

[발표6] — 북한 실태 조사 111
북한 실태 조사(요약) 121
: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표7] —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131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요약) 137
: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발표8] —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 141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요약) 151
: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연구 개요

2018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

2018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

- 조사연구 개요 -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사내용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사내용	북한 주민의식							
통일의식	O	O	O	O	O	O	O	O
대남의식	O	O	O	O	O	O	O	O
북한실태	O	O	O	O	O	O	O	O
남한적응	O	O	O	O	O	O	O	O
조사내용	북한 사회변동							
주민생활 (의식주 등)	--	O	O	O	O	O	O	O
정보화	--				O	O	O	O
사회보장	--					O	O	O
사적 경제활동	--	O	O	O	O	O	O	O
경제개혁인식	--			O	O	O	O	O

조사방법, 표본 (단위: 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사기간	4/15-6/4	4/6-6/2	6/13-7/16	5/28-6/30	5/22-7/6	6/10-8/8	6/8-8/6	7/20~8/31
탈북연도								
2010	104							
2011	1	127						
2012			133					
2013				149				
2014					146			
2015						135		
2016						3	132	
2017								84
2018								3
합계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조사방법	면대면 설문조사							

2018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일지

시 기	내 용
1월	• 김정은 국무위원장 새해 신년사 발표(1.1)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1차: 1.9, 2차: 1.17)
2월	•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남북선수단 동시입장(2.9)
3월	• 대북특별사절단 방북(3.5)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3차, 3.29)
4월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4.27) 및 '판문점 선언' 채택
5월	• 김정은 위원장 中 시진핑 국가주석 회담(5.7) • 트럼프 美대통령 6.12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 발표(5.10) •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5.24) • 트럼프 美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5.24) •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5.26)
6월	• **북미정상회담 개최**(6.12)
7월	•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방북, 北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7.6-7)
8월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4차, 8.13) • 이산가족 상봉(8.20-22, 24-26)
9월	•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9.18) 및 '평양공동선언' 채택 • 문재인 대통령 방미, 트럼프 대통령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9.24)

표본 수 감소 원인

- 남한에 들어온 전체 탈북자 수의 감소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9 (잠정)	합계
남(명)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11	9,104
여(명)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697	23,043
합계(명)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808	32,147
여성비율	71%	73%	76%	78%	80%	79%	83%	86%	72%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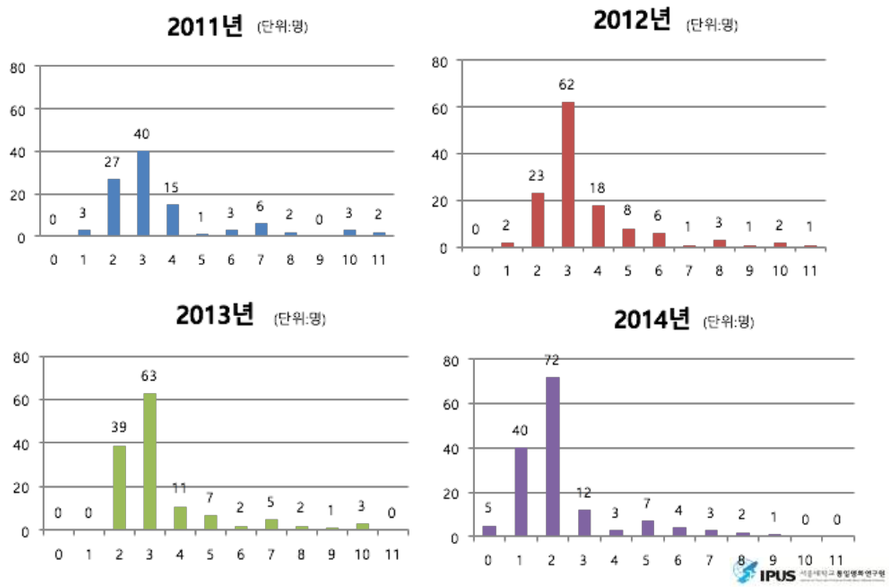
- 남성 비율의 감소 => 남한으로의 직행 탈북자 수 감소
- 국경 경비 및 감시체계의 강화
  - 국경선 3선 경비의 체계화
  - 철조망 공고화와 보수 작업 강화
  - 경비대의 당원가입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빈번
- 브로커 비용 상승 및 단속 강화
- 감청기, 전파차단기 보급으로 중국과의 통신이 어려워짐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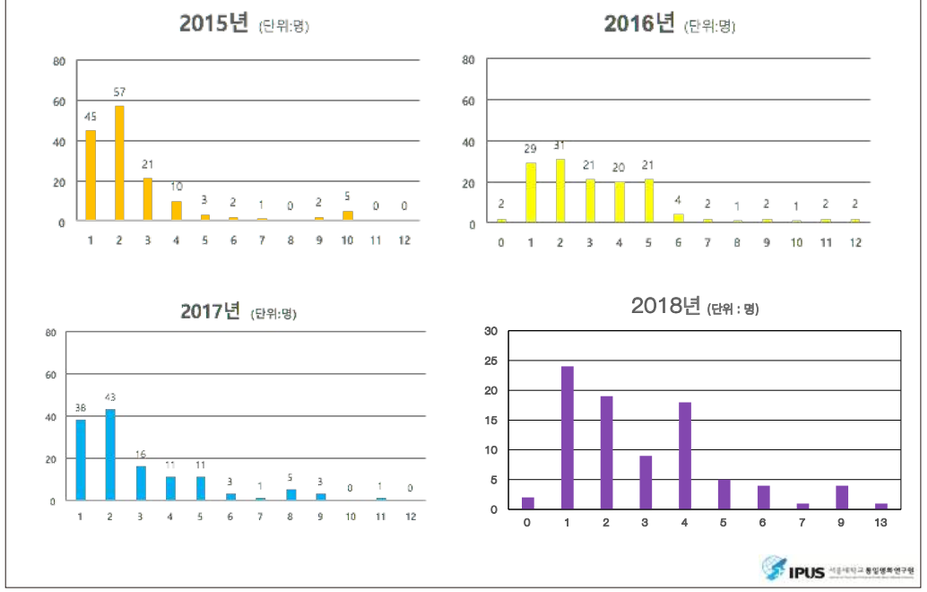
연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대	0	0	0	0	1	2	2	1	0	1	0	0	0	0	3	1
20대	13	19	22	21	24	22	17	31	16	29	14	38	24	23	14	19
30대	12	17	11	12	17	12	13	15	20	25	16	16	24	15	11	10
40대	6	10	10	21	11	27	12	27	13	24	15	19	16	11	5	5
50대	1	14	6	11	7	9	6	13	6	10	7	9	5	12	5	14
60대 이상	4	9	7	6	0	4	2	13	2	1	1	3	1	1	0	0
합계	36	69	56	71	60	76	50	99	57	89	53	85	70	62	38	49
(성비, %)	34.3	65.7	44.1	55.9	43.9	56.1	33.6	66.4	39.0	61.0	38.4	61.6	53.0	47.0	43.7	56.3

- 2014/2015 조사의 응답자 중 10대는 각각 3명, 1명이었으며, 10대는 20대에 포함됨. 2016/2017 조사에는 10대가 없었음. 2018년 조사에는 10대가 4명 이었음
- 20대 37.9%, 30대 24.1%, 40대 11.5%, 50대 21.8%, 60대 이상 0.0%로 2017년 연령대 비율과 비교하여 20대, 30대 비율이 약간 높아진 반면 60대는 한 명도 없었음.
- 남성은 43.7% 여성은 56.3% 로 2017년 성비역전현상에서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함.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 (단위: 명)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 (단위: 명)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북한의 출신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양	0	0	1	3	3	5	2	2
남포	0	1	0	2	1	2	1	0
개성	0	0	0	0	0	0	1	1
평안남도	5	0	2	4	3	2	0	2
평안북도	0	1	6	0	3	1	1	5
함경남도	4	14	11	9	5	4	6	4
함경북도	55	65	51	53	64	58	33	20
자강도	0	0	0	1	0	0	0	0
양강도	40	39	58	72	60	63	84	52
황해남도	0	3	0	1	1	0	4	1
황해북도	1	3	1	2	4	0	0	0
강원도	0	1	2	2	2	3	0	0
합계	105	127	132	149	146	138	132	87

교육수준_탈북 전 최종학력 수준 (단위: %)

교육수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학교	11.4	10.4	16.5	13.6	19.9	13.0	7.6	5.7
전문학교	21.0	18.4	11.3	21.8	16.4	11.6	17.4	13.8
고등중학교	66.7	66.4	71.4	62.6	61.0	74.6	72.0	73.6
인민학교	1.0	3.2	0.0	2.0	2.1	0.7	2.3	6.9
무학	0.0	1.6	0.8	0.0	0.7	0.0	0.8	0.0
합계(빈도)	105	125	133	147	146	138	132	87

- 전문학교 이상 북한 학력자: **19.5%**
- 고등중학교 북한 학력자: **73.6%**

직업분포_북한에서의 직업 (단위: %)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노동자	29.3	37.6	31.6	31.1	26.2	22.5	43.9	32.2
농민	9.1	8.8	3.8	7.4	4.8	9.4	3.8	11.5
사무원	13.1	4.8	9.8	12.2	9.0	10.9	6.1	6.9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8.1	7.2	8.3	3.4	5.5	7.2	7.6	0.0
학생	7.1	6.4	6.0	7.4	4.8	4.3	2.3	13.8
군인	6.1	4.0	4.5	4.7	4.8	8.0	5.3	3.4
외화벌이일군	1.0	2.4	2.3	0.0	4.1	2.9	3.8	0.0
장사	11.1	11.2	13.5	4.7	20.7	12.3	9.8	0.0
주부	11.1	11.2	16.5	18.9	11.7	13.0	10.6	21.8
무직 및 기타	4.0	6.4	3.8	10.1	8.3	9.4	6.8	10.3
합계(빈도)	99	125	133	148	145	138	132	87

당원여부 (단위: %)

당원여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원	9.9	14.4	14.3	13.5	17.9	18.8	18.3	13.8
후보당원	1.0	0.0	0.0	0.7	0.7	0.0	0.8	0.0
비당원	89.1	85.6	85.7	85.8	81.4	81.2	80.9	83.9
합계(빈도)	101	125	133	147	145	138	132	87

공식 소득 (공식 월급) 수준 (단위: 명)

공식월급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원	27	32	69	91	80	80	62	45
1000원 이하	7	10	2	13	7	7	8	8
5000원 이하	37	46	49	39	52	37	54	18
1만원 이하	2	4	5	2	1	4	0	0
10만원 이하	6	9	0	3	4	5	2	9
50만원 이하	2	5	4	0	0	3	3	5
100만원 이하	1	0	2	0	1	2	2	1
100만원 초과	0	0	0	1	1	0	1	0
무응답	23	21	2	-	-	-	-	1
합계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 5000원 이하 비율이 감소, 10만원 이하 비율이 증가함.
- 공식월급이 “없었다 (0원)” 라고 응답한 비율 증가함.

비공식 소득 수준 (단위: 명)

비공식 수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원	18	21	32	33	24	32	18	18
1000원 이하	6	0	3	4	0	2	1	0
5000원 이하	7	2	0	2	0	1	4	1
1만원 이하	2	2	3	2	0	1	0	1
10만원 이하	18	25	9	26	9	11	11	14
50만원 이하	19	44	52	43	43	37	45	27
100만원 이하	6	8	10	17	36	33	18	12
100만원 초과	6	7	19	15	34	22	35	13
무응답	23	18	2	2	-	-	-	1
합계	105	127	133	144	146	138	132	87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장사경험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있다	71.3	69.8	74.4	69.8	76.7	68.8	69.7	60.9
없다	28.7	30.2	25.6	30.2	23.3	31.2	30.3	39.1
합계 (빈도)	101	126	133	149	146	138	132	87

탈북 후 북한 소식 접근성 (단위: %)

북한소식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7	19.7	22.6	24.8	19.3	26.1	20.5	19.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6.9	59.1	57.1	57.8	55.2	50.7	56.1	63.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4	21.3	20.3	17.5	25.5	23.2	23.5	17.2
합계(빈도)	102	127	133	149	145	138	132	87

탈북 전 남한 내 친척 유무 (단위: %)

남한친척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없다	40.2	37.8	34.6	30.9	41.8	60.9	51.5	49.4
있다	59.8	62.2	65.4	69.1	58.2	39.1	48.5	50.6
합계(빈도)	102	127	133	149	146	138	132	87

현재의 결혼 상태 (단위: %)

결혼상태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혼	55.6	46.0	37.6	30.9	39.3	42.0	40.5	50.6
결혼 (동거포함)	44.4	44.4	53.4	55.0	42.8	47.1	45.8	41.4
이혼	0.0	9.5	9.0	14.9	17.9	10.9	13.7	5.7
합계 (빈도)	99	126	133	149	146	138	131	87

현재의 자녀 수 (단위: %)

자녀 수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명	29.6	30.4	38.4	34.2	39.7	43.5	43.2	52.9
1명	35.8	34.3	32.3	27.5	35.6	33.3	36.4	24.1
2명	22.2	24.5	24.1	29.5	21.2	18.8	18.9	19.5
3명	7.4	8.8	4.5	6.7	2.1	4.3	0.8	3.4
4명	4.9	2.0	0.8	1.3	1.4	0.0	0.8	0.0
5명	0.0	0.0	0.0	0.7	0.0	0.0	0.0	0.0
합계(빈도)	81	102	133	149	146	138	132	87

발표 1

북한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최경희 ((사)샌드연구소)

2018년 북한 사회변동 조사

북한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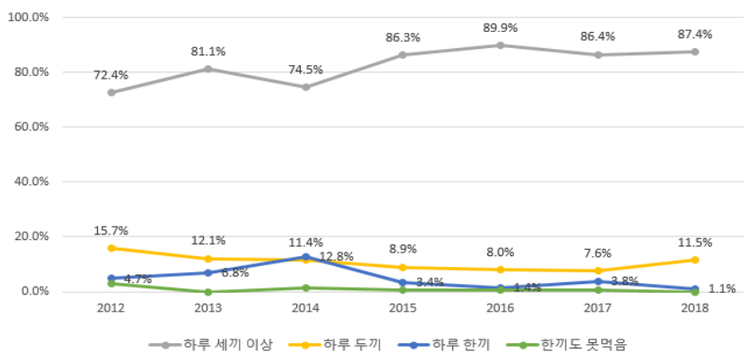
최 경 희
(사)샌드연구소

1. 식·의·주 소비생활 실태
2. 월평균 지출 항목
3. 일상생활의 고민, 가족 내의 의사결정
4. 남한 물건 사용한 경험
5.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

1. 식·의·주 소비생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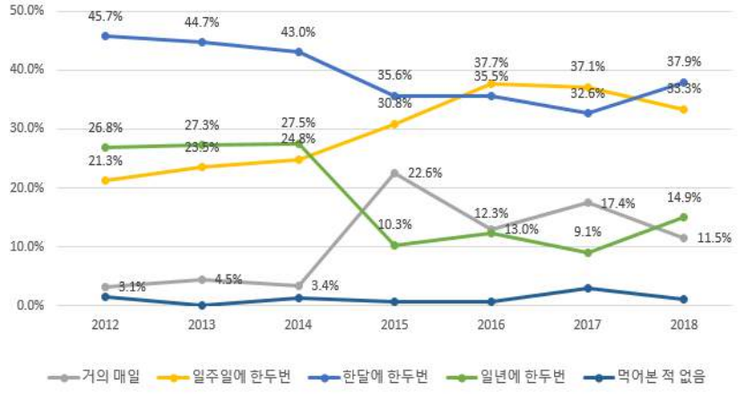
하루 식사 횟수

○ 2015년 이후 세끼 식사의 응답률이 80%대 유지.
○ 식생활의 양적 수준이 느린 정도의 감소를 보이며 질적 수준은 전년대비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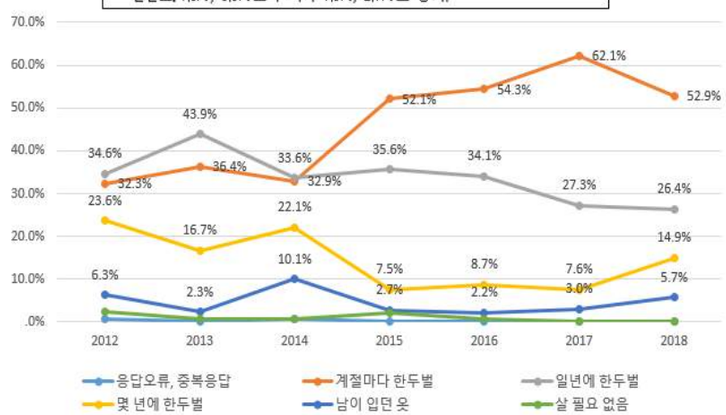
고기식사 횟수

○ 전년대비 고기 섭취량 감소.
- 매일 섭취: 17.4%→11.5%, 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 37.1%→33.3%로 줄어듦.
- 한달에 한두 번: 32.6%→37.9%, 일 년에 한두 번 섭취: 9.1%→14.9%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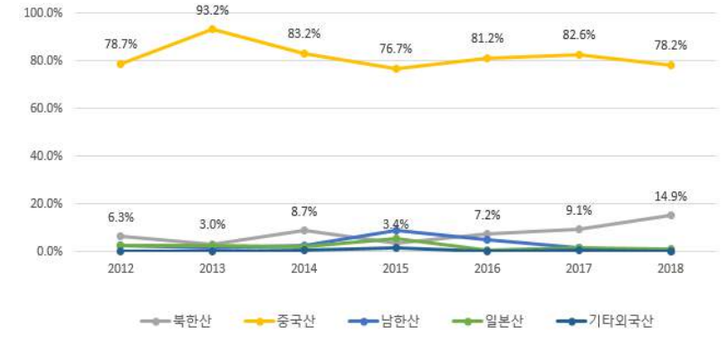
의생활: 옷 구입 횟수

○ 한두 벌씩 옷을 구입하는 응답률 52.9%, 전년도 62.1% 대비 9.8% 감소.
○ 몇 년에 한두 벌 구입한다는 14.9%, 남이 입던 옷을 입는다는 5.7%로 전년도 7.6%, 3.0%보다 각각 7.3%, 2.7%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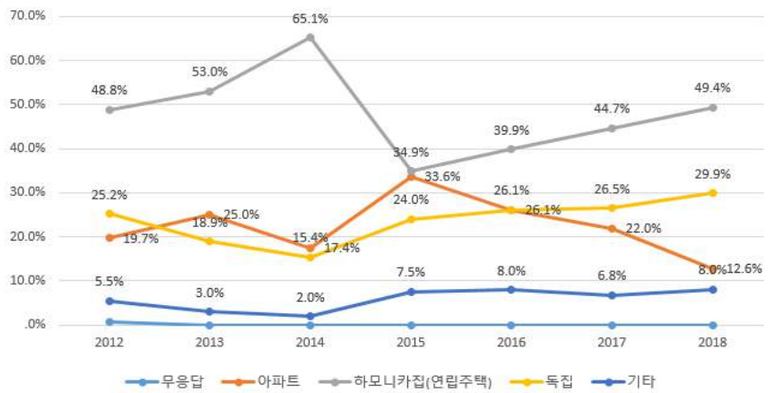
의생활: 구입한 옷 원산지

○ 중국산 옷 구입자: 78.2%로 전년도 82.6% 대비 4.4% 감소.낮아졌고 대신
○ 북한산 옷 구입자: 14.9%로 전년도 9.1%보다 5.8% 증가, 남한산 0%,
일본산 1.1%, 기타 외국산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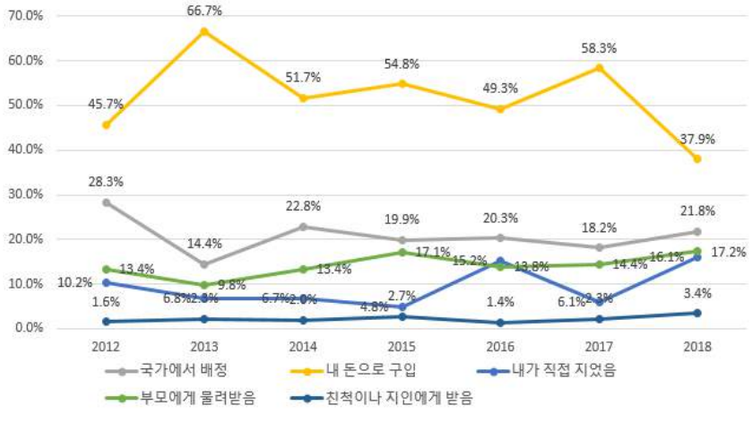
주생활: 살림집 형태

○ 하모니카(연립주택) 49.4%, 독집(단독주택) 29.9%,
기타 살림집 8.0%로 전년도 (44.7% 26.5%, 6.8%) 보다 증가.
○ 아파트는 2015년 24.0%, 2016년 26.1%>2017년 22.0%>2018년 12.6%로
거의 매년 감소하는 추이



주생활: 살림집 장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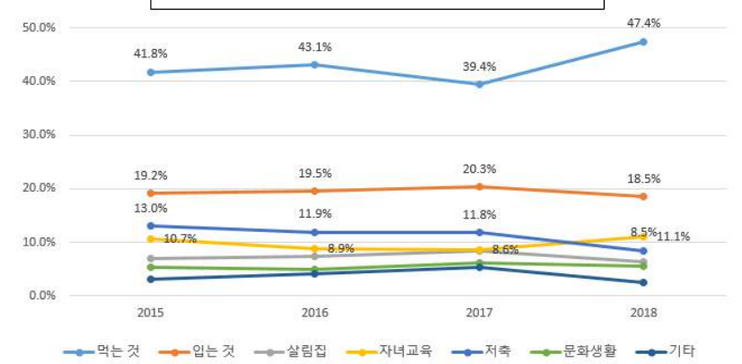
○ 내 돈으로 살림집 구입: 37.9%로 전년(58.3%)대비 20.4%나 감소.
○ 국가배정이나 부모에게 받았음: 21.8%, 17.2%로 전년도 18.2%, 14.4%보다
약간 증가.



2. 월평균 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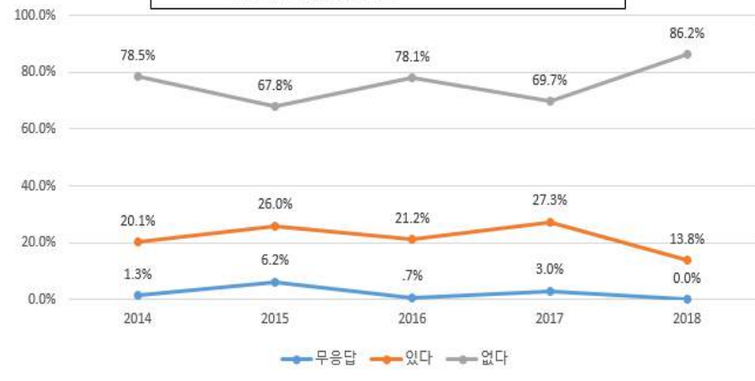
월평균 지출

○ 식생활 47.4%>의생활 18.5%>자녀교육11.1%>저축 8.5%의 순.
○ 매년 월평균 식생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8년은 전년도 39.4%에
비해 8.0% 더 증가.



자녀 사교육 경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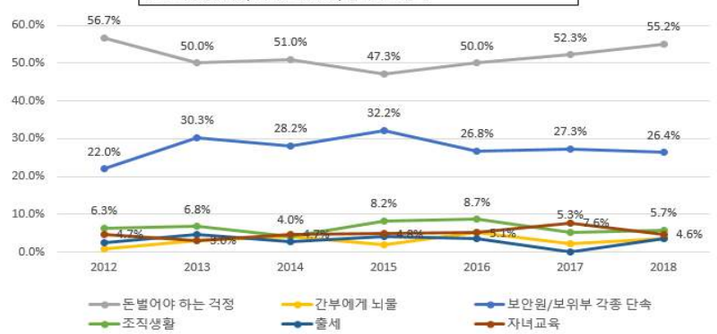
○ 자녀 사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3.8%로
2014(20.1%), 2015(26.0%), 2016(21.2%), 2017(27.3%)에서
처음으로 10%대로 감소.



3. 일상생활의 고민, 가족 내의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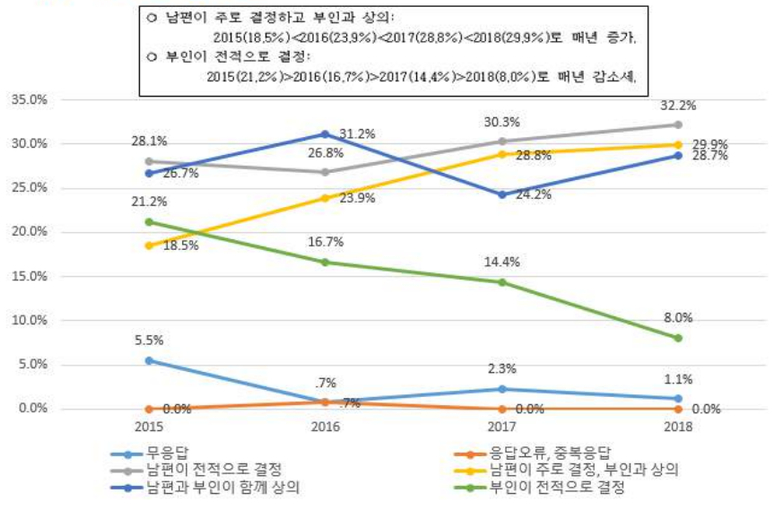
일상생활의 고민: 돈벌이 걱정>단속/통제

○ '돈벌이'(55.2%) 고민이 가장 많았고 2015(47.3%), 2016년(50.0%), 2017년(52.3%)에 이어 매년 2~3%정도 증가하는 추세
○ 보안원 등 단속기관의 통제(26.4%)는 2015년(32.3%), 2016년(26.8%), 2017년(27.3%)에서 2018년 26.4%로 약간 감소.
○ 조직생활(5.7%), 자녀교육(4.6%), 출세의 고민 등



가족 내의 결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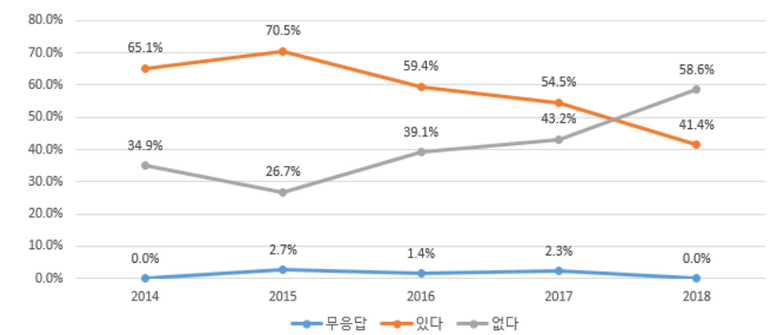
○ 남편이 주로 결정하고 부인과 상의:
2015(18.5%)<2016(23.9%)<2017(28.8%)<2018(29.9%)로 매년 증가.
○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
2015(21.2%)>2016(16.7%)>2017(14.4%)>2018(8.0%)로 매년 감소세.



4. 남한 물건 사용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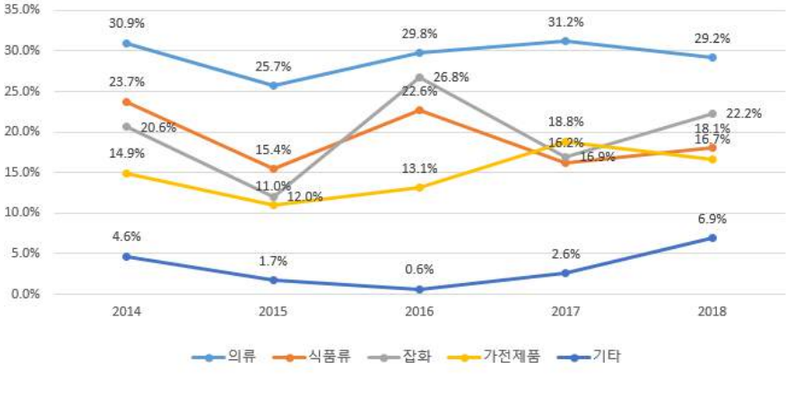
남한물건 사용한 경험

○ 남한물건을 사용한 응답률: 58.6%로 2015년(70.5%), 2016년(59.4%), 2017년(54.5%)이어 연속 감소. 경험자 10명 중 7명→5명으로 반으로 감소.



사용해본 남한산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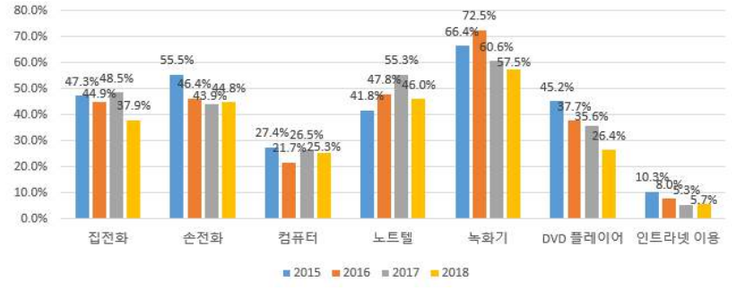
○ 남한산 물건의 종류: 의류(29.2%), 잡화(22.2%), 식품류(18.1%), 가전제품(16.7%)순으로 의류가 가장 많으나 전년도 31.2%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
○ 잡화(화장품, 신발, 가방 등) 종류: 전년도 16.2%에 비해 6.0%나 증가.



5.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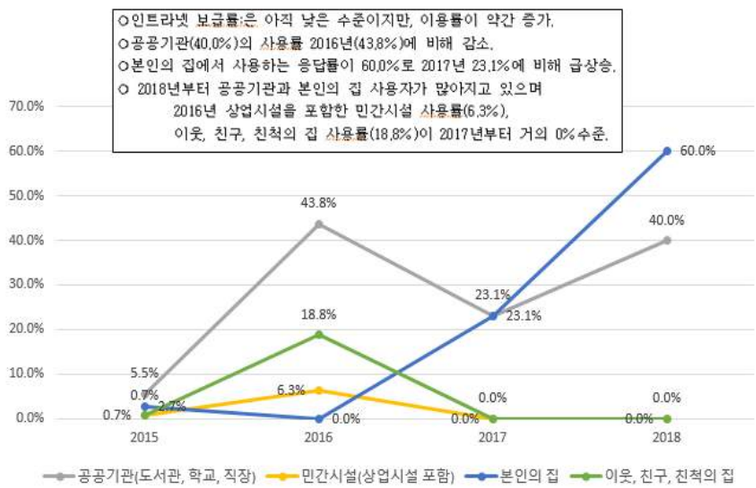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 실태

○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률: 집전화(57.5%)>손전화(46.0%)>노트텔(44.8%)>녹화기(37.9%)>DVD플레이어(25.4%)>컴퓨터(25.3%)>인트라넷(5.7)의 순.
○ 집전화, 노트텔, 녹화기, DVD플레이어 보유 및 이용률: 전년대비 감소, 손전화, 인트라넷 보유 및 이용률: 전년(33.6%, 5.3%)대비 증가, 컴퓨터 보유 및 이용률: 전년(26.5%)대비 약간 감소.
*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에서 계층 간의 격차가 많음을 보여줌.



인트라넷 이용 장소

○인트라넷 보급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이용률이 약간 증가.
○공공기관(40.0%)의 사용률 2016년(43.8%)에 비해 감소.
○본인의 집에서 사용하는 응답률이 60.0%로 2017년 23.1%에 비해 급상승.
○ 2018년부터 공공기관과 본인의 집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2016년 상업시설을 포함한 민간시설 사용률(6.3%), 이웃, 친구, 친척의 집 사용률(18.8%)이 2017년부터 거의 0%수준.



북한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요약)

최경희 ((사)샌드연구소)

1. 의식주와 소비생활 실태

가. 식생활 실태

1) 식생활 조사에서 하루 세 끼 식사를 한다는 응답자가 87.4%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2) 고기식사 횟수는 거의 매일 섭취한다는 응답자가 11.5%로 전년도 17.4%에 비해 5.9% 정도 감소하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한다는 응답은 33.3%로 전년도 37.1%에 비해 3.8% 정도 감소. 반면 한 달에 한두 번 섭취정도가 37.9%로 나타나 전년도 32.6% 보다 5.4% 증가하고, 일 년에 한두 번 섭취정도가 14.9%로 전년도 9.1%에 비해 5.8% 증가했음.

3) 섭취하는 곡물비율은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은 2016년(60.1%), 2017년(52.3%)에 이어 44.8%로 감소되고 있으며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 섞어서 먹었다'고 말한 응답자는 2016년(10.1%), 2017년(16.7%)에 이어 17.2%로 약간 증가, '강냉이 위주로 먹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년도 6.1%에서 14.9%급상승했음.

4) 식생활 형편을 묻는 질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응답은 2015년(39.7%), 2016년(33.3%), 2017년(31.1%)에 이어 2018년(26.4%)로 매해 감소하고 있음. '가끔 먹을 것이 부족 했다'는 17.2%로 전년도 12.1%보다 증가했고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답한 응답은 2015년(1.4%), 2016년(2.9%), 2017년(5.3%)에 이어 2018년(9.2)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5) 전체적으로 식생활의 양적 수준이 느린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질적 수준이 대폭 감소되어 식생활의 어려운 실태를 나타냄.

나. 의생활 실태

1) 옷 구입횟수를 묻는 질문에 계절마다 한두 벌씩 옷을 구입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2.9%로 전년도 62.1%의 응답률보다 9.8%나 감소되었음. 몇 년에 한두 벌 구입한다는 응답자는 14.9%, 남이 입던 옷을 입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5.7%로 전년도의 7.6%, 3.0%보다 각각 7.3%, 2.7%로 높게 나타났음.

2) 중국산 옷을 구입한 응답자는 78.2%로 전년도 82.6% 대비 4.4%가 낮아졌고 대신 북한산을 구입한 응답자는 14.9%로 전년도의 9.1%보다 5.8% 증가, 남한산 0%, 일본산 1.1%, 기타 외국산 0%로 나타남.

3) 의류 구매율이 2012년 32.3%, 2015년 52.1%, 2017년 62.1%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 급감했는데 그 이유는 거듭되는 국제제재로 중국산의 수입량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됨. 조사에서 보여주듯이 아직은 중국산 의류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나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 북한산 의류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됨.

다. 주생활 실태

1) 주택생활 조사에서 살림집 형태는 하모니카(연립주택) 49.4%, 독집(단독주택) 29.9%, 기타 살림집 8.0%로 전년도 (44.7% 26.5%, 6.8%) 보다 증가. 그러나 아파트 사용자는 2016년 26.1%〉2017년 22.0%〉2018년 12.6%로 매년 감소 추이를 보임.

2) 살림집을 장만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내 돈으로 구입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9%로 전년도 58.3%에 비해 20.4%나 감소. 국가에서 배정받거나 부모에게 살림집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21.8%, 17.2%로 전년도 18.2%, 14.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3) 살림집 장만은 북한의 내적변화와 소유의식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내가 직접 집을 지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2015년 2.7%→2016년 15.2% 증가하였다가 2017년 2.8%로 감소했고 다시 17.2%로 전년대비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남.

4) 연립주택이나 독집과 같은 살림집 건설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파트 공급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임. 살림집을 내 돈으로 장만하는 사례는 현저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면서 국가의 배정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살림집 사용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 살림집을 직접 구매하는 경로에서 국가의 개입(통제, 규제 등)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2. 월평균 지출항목의 비중

1) 북한주민의 월평균 항목별 지출을 조사한 결과 식생활 47.4%〉의류소비 18.5%〉자녀교육11.1%〉저축 8.5%의 순으로 높아짐. 해마다 월평균 지출 항목에서 식생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금년 조사에서는 2017년 39.4%에

비해 8.0%나 더 높아졌음.

2) 의류소비와 저축의 비율은 전년도 20.3%, 11.8%에서 다소 감소했고 식생활 지출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보면 물가 인상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사교육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8%로, 전년도에 비해 14.5%나 감소된 반면 사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년도 69.7%보다 16.5%증가해 85.2%로 나타남.

3) 자녀의 사교육 실태가 과거(2014년 20.1%, 2015년 26.0%, 2016년 21.2%, 2017년 27.3%)의 응답률에 비해 처음으로 10%대로 감소했는데 이는 지출이 높은데 비해 월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사회의 통제가 심해진데 따른 현상으로 보임. 2016년 (5.1%), 2017년 (7.6%)보다 자녀교육의 걱정이 4.6%로 감소된 것도 학교 조직생활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사교육 경험이 줄어드는 것과 맥을 같이 함.

3. 일상생활의 고민, 가족의 의사결정

1) 북한주민이 일상생활의 고민을 묻는 질문에 '돈벌이'(55.2%)로 2015년(47.3%), 2016년(50.0%), 2017년(52.3%)에 이어 매년 2~3%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반면 보안원 등 단속기관의 통제(26.4%)는 2015년(32.3%), 2016년(26.8%), 2017년(27.3%)에서 2018년 26.4%로 약간 감소.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돈벌이와 단속에 대한 고민은 조직생활(5.7%), 자녀교육(4.6%), 출세의 고민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매년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2) 가족 내의 의사결정권은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32.2%,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한다는 응답자는 28.7%로 전년도 30.3%, 24.2%에 비해 다소 증가함. 가족의 의사결정을 '남편이 주로 결정하고 부인과 상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5(18.5%)〈2016(23.9%)〈2017(28.8%)〈2018(29.9%)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고 반대로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2015(21.2%)〉2016(16.7%)〉2017(14.4%)〉2018(8.0%)로 매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 과거 고난의 행군시기를 겪으며 가족 내의 주도권이 남편에서 부인으로 이동이 되었다면, 2015년 이후 다시 남편에게 이동되는 추이가 보임. 이는 북한의 사회질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전통질서로 회복되고 있는 양상.

4. 남한물건 사용한 경험

1) 북한에서 남한 물건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8.6%로 2015년(70.5%), 2016년(59.4%), 2017년(54.5%)이어 연속 감소하여 경험자 10명 중 7명에서 5명으로 떨어지는 추이.

2) 사용해본 남한산 물건의 종류는 의류(29.2%), 잡화(22.2%), 식품류(18.1%), 가전제품(16.7%)순으로 의류가 가장 많으나 전년도 31.2%에 비해 눈에 띠게 감소하고 있음. 잡화(화장품, 신발, 가방 등)는 전년도 16.2%에 비해 6.0%나 증가함.

사용해본 남한산 제품의 종류 단위 : %

남한물건	2014	2015	2016	2017	2018
의류	5.6	32.2	6.5	11.7	6.9
식품류	0.5	2.1	0.6	2.6	0.0
잡화	30.9	25.7	29.8	31.2	29.2
가전제품	23.7	15.4	22.6	16.2	18.1
기타	20.6	12.0	26.8	16.9	22.2
무응답	14.9	11.0	13.1	18.8	16.7
응답오류, 중복응답	4.6	1.7	0.6	2.6	6.9
합계	100	100	100	100	100

5.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

1) 북한 내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률은 집전화(57.5%)〉손전화(46.0%)〉노트텔(44.8%)〉녹화기(37.9%)〉DVD플레이어(25.4%)〉컴퓨터(25.3%)〉인트라넷(5.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 집전화, 노트텔, 녹화기, DVD플레이어 보유 및 이용률은 전년대비 감소, 손전화, 인트라넷 보유 및 이용률은 전년(33.6%, 5.3%)대비 증가, 컴퓨터 보유 및 이용은 전년(26.5%)에 비해 약감 감소하여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에서 계층 간의 격차가 많음을 보여줌.

3) 아직 인트라넷 보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용률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용 장소가 도서관, 학교, 직장 등 공공기관(40.0%)의 사용율이 2016년(43.8%)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본인의 집에서 사용한 응답률이 60.0%로 2017년 23.1%에 비해 급상승.

4) 2018년부터 공공기관과 본인의 집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2016년 상업시설을 포함한 민간시설 사용률(6.3%), 이웃, 친구, 친척의 집 사용률(18.8%)이 2017년부터 거의 0%수준으로 나타남.

발표 2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

김일한 (동국대 DMZ 평화센터)

2018 북한사회변동 조사결과 발표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김일한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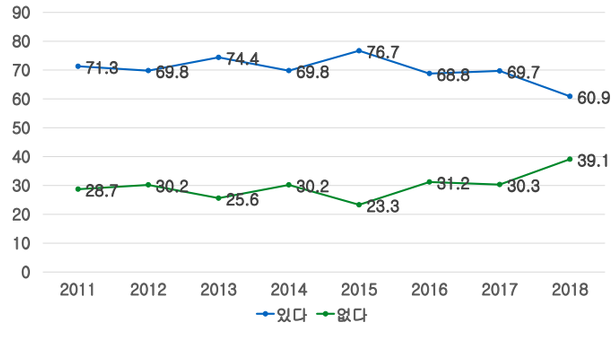
조사내용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사내용	북한 사회변동							
사적 경제활동	--	O	O	O	O	O	O	O
경제개혁인식	--			O	O	O	O	O

경제의 시장화, 자유화

- 생활수준의 변화
- 주요 소득원과 소비
- 노동시장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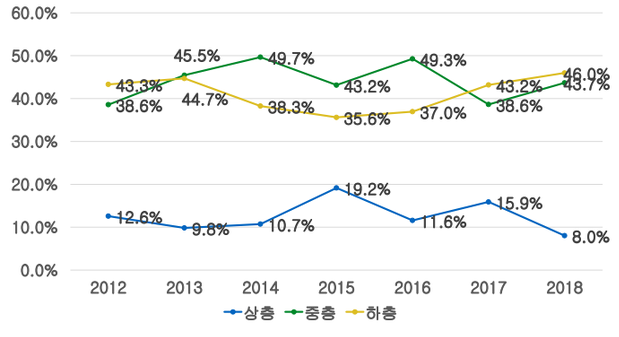


- 2017년 대비 장사활동 경험 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2018년 표본이 부양(19.5%)과 무직(8.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판단됨.

- 문 8 :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의 세 시기에 각각 자신의 생활수준이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 나 √로 표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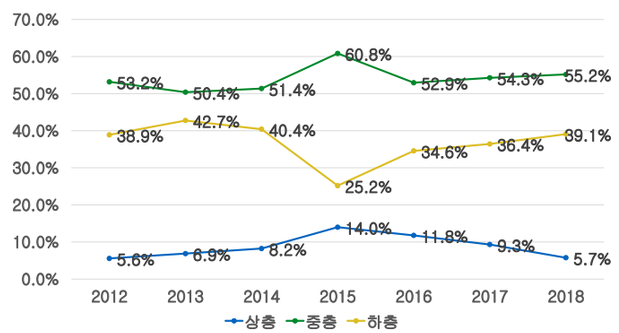
1994년~1999년	2000년~2004년	2005~2010년	2011년~탈북전
① 상층 ② 중층 ③ 하층	① 상층 ② 중층 ③ 하층	① 상층 ② 중층 ③ 하층	① 상층 ② 중층 ③ 하층

문 8. 북한 거주 당시 생활수준(1994-199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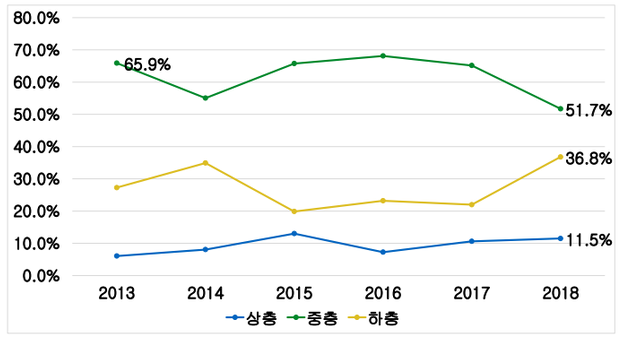
-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들의 스스로 중/하층의 생활수준을 유지했다고 기억하고 있음.

문 8. 북한 거주 당시 생활수준(2000-200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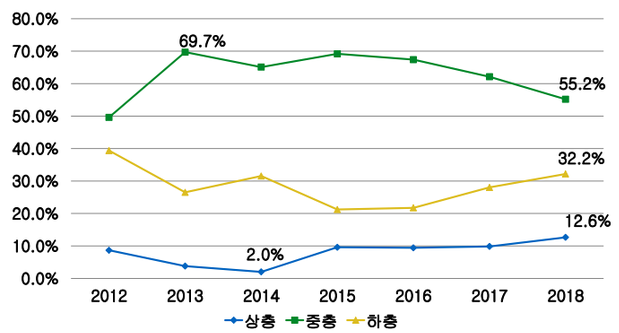
- 고난의 행군이 종료되고,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 장마당 설치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은 증가하고, 하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문 8. 북한 거주 당시 생활수준(2005-20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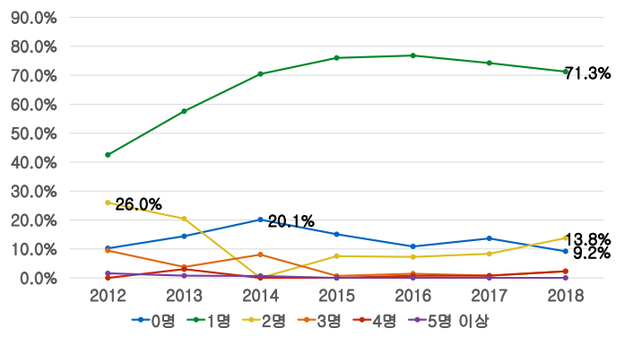
- 2005년 이후 하층의 감소폭이 더욱 가속화되고, 중산층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제상황이 더디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문 8. 북한 거주 당시 생활수준(2011-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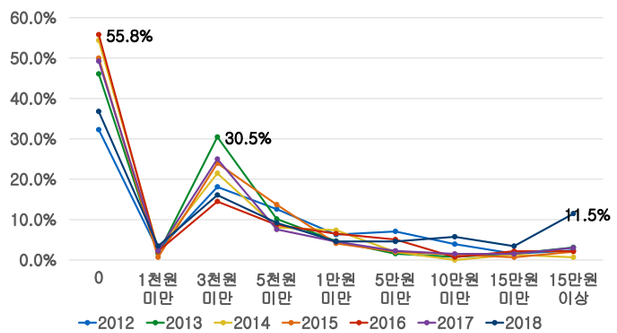
- 중산층은 2010년 이후 비중이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
- 하층은 20~40%선 유지
- 상층 비중은 미약하지만 꾸준한 증가세 유지, 2005~2010년 경향도 유사

문 9. 가족중 직장인 숫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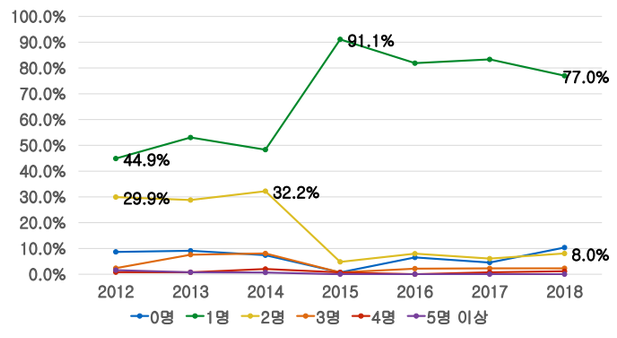
- 평균 4인 1가족의 구성원 중 1명이 직장인으로 보임.

문 9. 가족중 직장인의 (공식) 총 생활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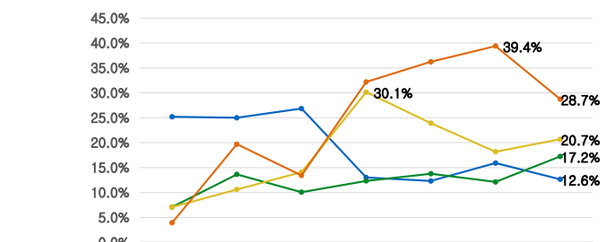
- 공식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는 비중이 평균 40~50%에 이르고,
- 평균 15~30%의 가구가 3천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문 10. 가족중 장사 및 부업인 숫자 (단위: %)



- 가족중 직장인 숫자와 더벌이 숫자가 각각 71.3%와 77.0%로 비슷
- 대부분의 가정이 가족 중 1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직장에 적을 두고 장사나 부업을 하는 비중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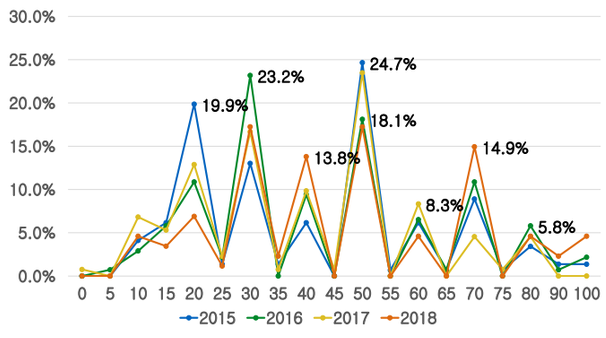
문 10. 가족중 장사 및 부업의 총수입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30만원 미만	25.2%	25.0%	26.8%	13.0%	12.3%	15.9%	12.6%
30~50만원 미만	7.1%	13.6%	10.1%	12.3%	13.8%	12.1%	17.2%
50~100만원 미만	7.1%	10.6%	14.1%	30.1%	23.9%	18.2%	20.7%
100만원 이상	3.9%	19.7%	13.4%	32.2%	36.2%	39.4%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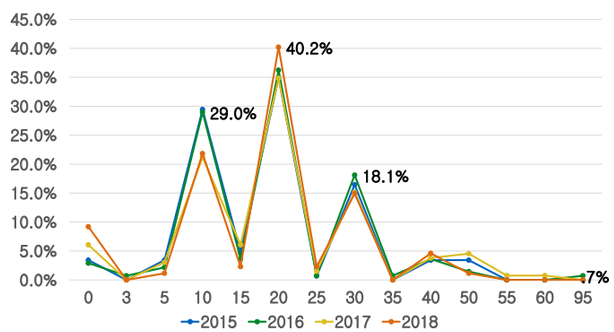
- 2014 이후 저소득층(월평균 30만원 미만)은 감소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부업 및 사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2018년 100만원 이상이 10% 하락한 원인이 대북제재의 영향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문 11. 월평균 수입중 주요 소비처 비중_먹는 것(식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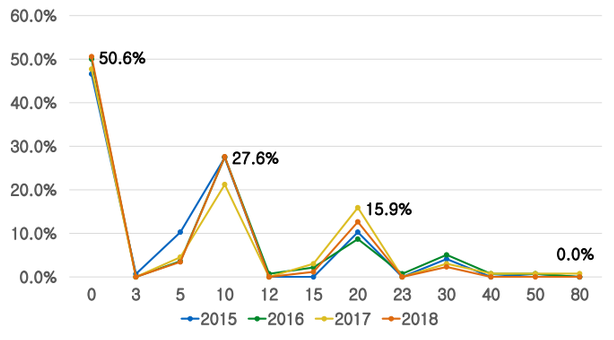
- 2015년과 2017년에는 각각 24.7%와 23.5%의 가구가 생활비중 50%를 식비로 소비
- 2018년에는 각각 17.2%의 가구가 30%와 50%의 생활비를 식비로 소비

문 11. 월평균 수입중 주요 소비처 비중_입는 것(의류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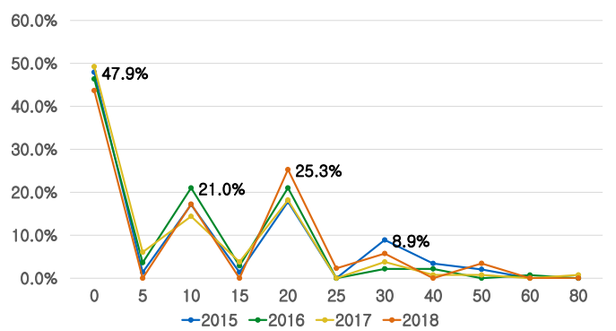
- 생활비중 의류비 비중은 대체로 10~20% 비중 유지
- 15%의 가구가 약 30%의 의류비 사용

문 11. 월평균 수입중 주요 소비처 비중_살림집(주거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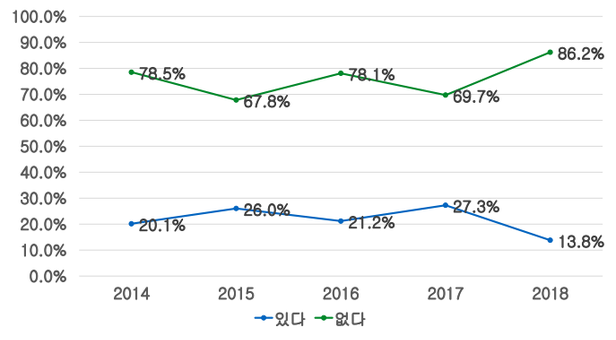
- 50%의 가구가 주거비 부담이 없으며
- 생활비중 주거비를 40% 이상 부담하는 가구는 7~8%(2016,2017)이며, 2018년 표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문 11. 월평균 수입중 주요 소비처 비중_자녀교육(교육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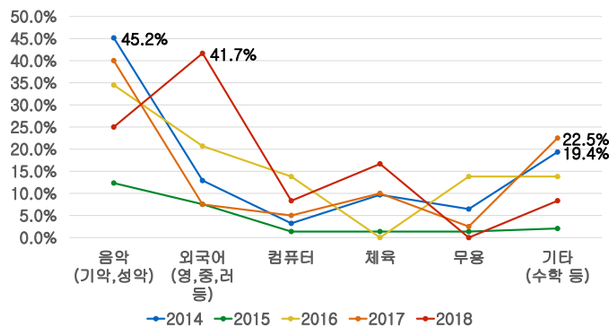
- 약 50%의 가구가 교육비 부담이 없으며(공교육)
- 생활비중 교육비를 10~20% 이상 부담하는 가구는 15~25%로 집계
- 20%이상 교육비를 부담하는 가구 비중은 2015년 17.8%, 2016년 21.0%, 2017년, 18.2%, 2018년 25.3%로 증가추세

문 11-1. 월평균 수입중 소비처 비중_사교육(개인강습)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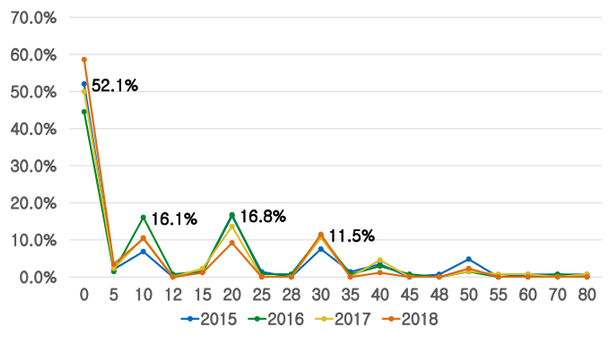
- 조사이래 평균 22.3%의 사교육 경험자가, 총 수입(생활비)중 교육비를 약 10~30% 부담하는 가정으로 추론 가능
- 총수입의 20%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정의 증가(2015년 17.8%, 2016년 21.0%, 2017년, 18.2%, 2018년 25.3%) 추세는 주목할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사교육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7차 당대회이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정책 효과인지 지속적 관찰 필요**

문 11-2. 월평균 수입중 소비처 비중_사교육 과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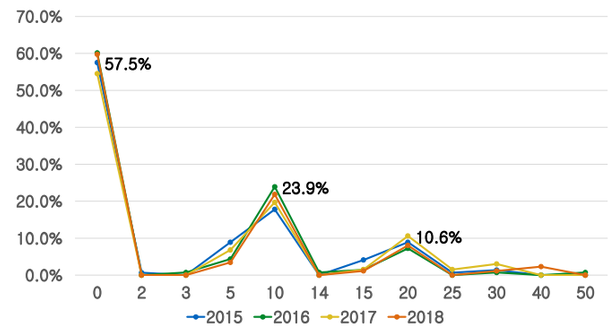
- 사교육 과목은 5년 평균 음악(23.6%) - 외국어(11.2%) - 수학 등(8.9%) 순으로 집계
- 2순위 비중도 추세는 유사

문 11. 월평균 수입중 주요 소비처 비중_저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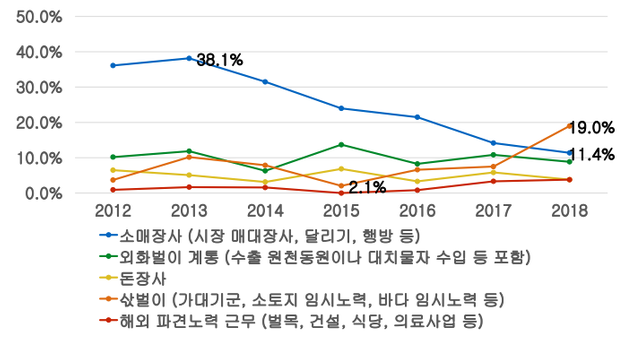
- 약 50%이상의 가구가 저축을 한 푼도 하지 않으며
- 평균 10%의 가구가 각각 소득의 10%, 20%, 30%를 각각 저축
- 조사이래 2018년 58.5%의 가구가 가장 낮은 저축률 기록(0%)

문 11. 월평균 수입중 주요 소비처 비중_문화생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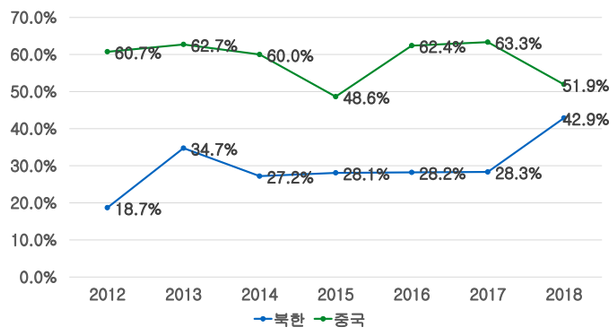
- 약 60%의 가구가 문화생활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며,
- 10% 사용 가구가 약 20%, 20% 사용가구가 약 10%로 나타남.
- 2018년 59.8%의 가구가 문화생활 소비 '0'

문 13. 고소득 업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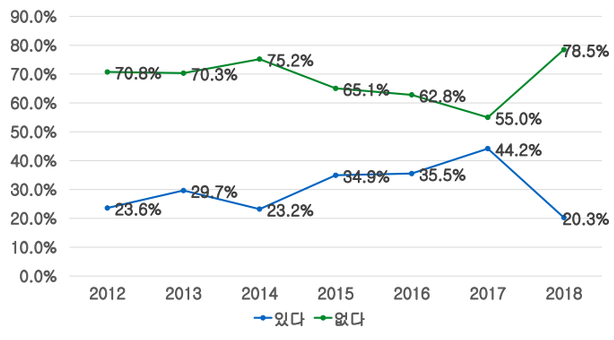
- 소매장사 비중의 축소는 소매장사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지표로 평가 가능하며,
- 노동력을 직접 판매하는 삯벌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은 북한의 '시장경제'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기타 업종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밀수 73명, 농업 관련 35명, 금광 관련 8명, 운수 관련 7명 등

문 15. 장사 물품이나 자재 조달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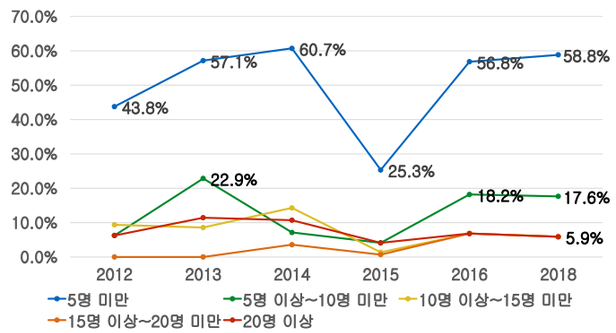
- 조사이래 중국과 북한 물품의 평균 비중이 각각 58.5%, 29.1%
- 단, 중국산 비중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63.3%에서 51.9%로 11.4% 감소한 반면, 북한산 비중은 28.3%에서 42.9%로 14.6% 증가
- 2가지 이유로 분석 가능한데, 첫째, 대북제재의 영향, 둘째, 북한산 자재의 품질 향상임.

문 17. 사경제활동시 인력 고용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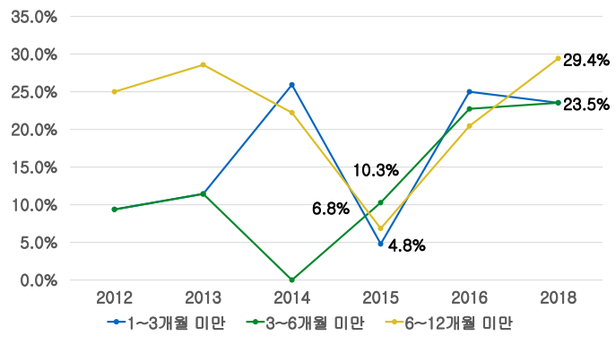
- 2018년 설문 표본 중 부양(19.5%)과 무직(8.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판단됨.
- 소매장사보다 개인노동이 중요해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문 17. 사경제활동시 고용 인력 숫자 (단위: %)



- 노동시장의 분포는 5인 미만 사업자가 비중이 가장 높고, 10인 미만 사업장도 증가하는 추세로 평가해야 할 것임.
- 32명(2012년), 35명(2013년), 28명(2014년), 146명(2015년), 44명(2016년), 17명(2018년) 등 전체 표본의 문제점 역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문 17. 사경제활동시 평균 고용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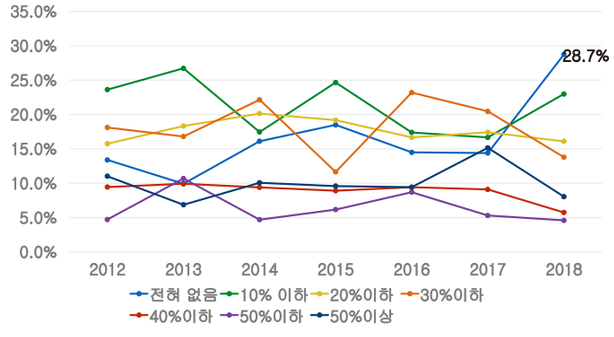


- 북한 노동시장의 고용기간은 1~12개월 미만이 전체의 약 40%
- 201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1년미만의 고용기간을 고려하면 북한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미성숙 단계로 평가해야 할 것임.

경제개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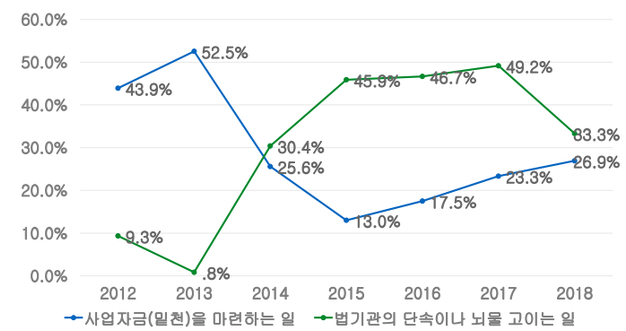
- 경제활동 제약요인_뇌물
- 경제활동의 자유
- 경제발전의 조건 및 제약요인

문 12. 총 수입중 뇌물 수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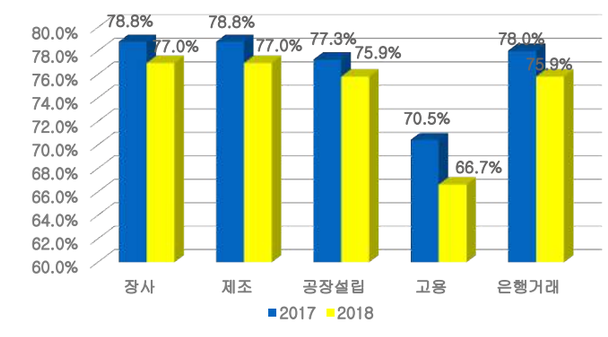
- 총 수입중 10~30%의 뇌물이 사용되는 추세가 지속되지만,
- 2018년 결과는 28.7%가 뇌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드러냄.
- 2012~2018년 뇌물을 사용하지 않은 비중('13.4% - 9.9% - 16.1% - 18.5% - 14.5% - 14.4% - 28.7%')의 추세중, 2018년 비중이 증가한 원인은 부양(19.5%)과 무직(8.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판단됨.
- (공권력의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평가, 혹시 제재에 의한 경기 침체?)

문 16. 사영활동, 사경제활동의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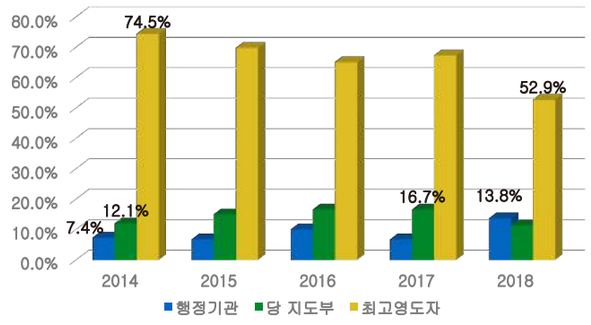
- 사경제활동의 최대 애로사항은 단속(31.6%)과 사업자금(28.3%)(평균)
- 2015년 이후 사업자금 부족이 증가하고, 단속이 감소하는 추세
- 특히 16%가 감소한 단속은 향후 지속적인 추세 확인이 필요함.

문 18. 경제활동의 자유_적극 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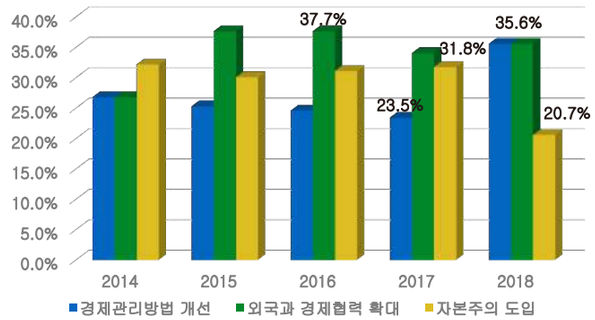
- 경제활동의 자유 부분에서 장사, 공장설립, 소비품제조, 고용, 은행대출 등 거래 항목에서 매우 높은 수요를 나타냄.

문 19. 경제발전의 저해요인 (단위: %)



- 최고지도자에 대한 적개심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 상대적으로 행정기관 및 당 기관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는 추세(2순위 결과 추세 분석 결과)
- 군부에 대한 불만은 매우 미미한 수준(1.8% 평균)인데, 각종 탈북자 심층인터뷰 결과도 비슷하며, 인민들이 군의 도움을 받거나 공생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 20. 경제발전의 조건 (단위: %)



-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외국과 경협(34.2%), 자본주의 도입(29.9%), 경제제도 개선(26.5%) 순
- 2018년 경제관리개선이 증가한 이유는 '5.30조치' 등 내부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인민들의 기대치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자본주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추세와 경향성이 일치
- 과학기술(5.5% 평균)을 강조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과 달리 인민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요약)

김일한 (동국대 DMZ 평화센터)

1. 경제생활과 시장화

가. 생활수준의 향상

1) 1994~1999년,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들의 스스로 중/하층의 생활수준을 유지했다고 기억하고 있음
2) 2000~2004년, 고난의 행군이 종료되고,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 장마당 설치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은 증가하고, 하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3) 2005년 이후, 하층의 감소 폭이 가속화되고, 중산층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제상황이 더디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4) 중산층 비중은 2010년 이후 50% 이상 꾸준히 유지, 하층은 20~40%선. 상층 비중은 미약하지만 꾸준한 증가세 유지, 2005~2010년 경향도 유사

나. 공식/비공식 경제활동

1) 공식/비공식 경제활동은 가구당 1인 중심
2) 공식 생활비(임금)은 절반은 '0', 15~30% 가구가 평균 3,000원 내외

3) 비공식 경제활동은 2014 이후 저소득층(월평균 30만 원 미만)은 감소하고,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부업 및 사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2018년 100만 원 이상이 10% 하락한 원인이 대북제재의 영향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다. 소비활동

1) (식비) 2015년과 2017년에는 각각 24.7%와 23.5%의 가구가 생활비중 50%를 식비로 소비하고, 2018년에는 각각 17.2%의 가구가 30%와 50%의 생활비를 식비로 지출
2) (의류비) 생활비중 의류비 비중은 대체로 10~20% 비중 유지, 15%의 가구가 약 30%의 의류비 사용
3) (주거비) 50%의 가구가 주거비 부담이 없으며, 생활비 중 주거비를 40% 이상 부담하는 가구는 7~8%(2016, 2017년)이며, 2018년 표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4) (교육비) 약 50%의 가구가 교육비 부담이 없으며(공교육), 생활비중 교육비를 10~20% 이상 부담하는 가구는 15~25%로 집계되었고, 20%이상 교육비를 부담하는 가구 비중은 2015년 17.8%, 2016년 21.0%, 2017년, 18.2%, 2018년 25.3%로 증가 추세

※ 사교육비 지출

- 조사 이래 평균 22.3%의 사교육 경험자가, 총 수입(생활비)중 교육비를 약 10~30% 부담하는 가정으로 추론 가능.
- 총 수입의 20%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정의 증가(2015년 17.8%, 2016년 21.0%, 2017년, 18.2%, 2018년 25.3%) 추세는 주목할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사교육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7차 당대회 이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정책 효과인지 지속적 관찰 필요.
- 사교육 과목은 5년 평균 음악(23.6%) –외국어(11.2%) –수학 등(8.9%) 순으로 집계, 2순위 비중도 추세는 유사.

5) (저축) 약 50%이상의 가구가 저축을 한 푼도 하지 않으며, 평균 10%의 가구가 각각 소득의 10%, 20%, 30%를 각각 저축. 조사 이래 2018년 58.5%의 가구가 가장 낮은 저축률 기록(0%)
6) (문화생활) 약 60%의 가구가 문화생활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며, 10% 사용 가구가 약 20%, 20% 사용가구가 약 10%로 나타남. 2018년 59.8%의 가구가 문화생활 소비 '0'

라. 선호 업종의 변화

1) 소매장사 비중의 축소는 소매장사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지표로 평가 가능하며, 노동력을 직접 판매하는 삯벌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은 북한의 '시장경제'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마. 물품 및 자재 조달

1) 조사이래 중국과 북한 물품의 평균 비중이 각각 58.5%, 29.1%
2) 단, 중국산 비중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63.3%에서 51.9%로 11.4% 감소한 반면,
3) 북한산 비중은 28.3%에서 42.9%로 14.6% 증가
4) 2가지 이유로 분석 가능한데, 첫째, 대북제재의 영향, 둘째, 북한산 자재의 품질 향상임.

바. 노동시장, 고용의 경험과 규모

1) 2018년 설문 표본 중 부양(19.5%)과 무직(8.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판단되며, 소매장사보다 개인노동이 중요해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2) 노동시장의 분포는 5인 미만 사업자가 비중이 가장 높고, 10인 미만 사업장도 증가하는 추세

3) 고용기간은 1~12개월 미만이 전체의 약 40%로 집계되고, 201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4) 1년 미만의 고용기간을 고려하면 북한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미성숙 단계로 평가해야 할 것임.

2. 경제개혁 인식

가. 뇌물수수

1) 가구당 총 수입 중 10~30%의 뇌물이 사용되는 추세가 지속되지만,
2) 2018년 결과는 28.7%가 뇌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특징
3) 2012~2018년 뇌물을 사용하지 않은 비중('13.4% – 9.9% – 16.1% – 18.5% – 14.5% – 14.4% – 28.7%')의 추세 중, 2018년 비중이 증가한 원인은 부양(19.5%)과 무직(8.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판단됨.
4) 공권력의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평가, 혹시 제재에 의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나. 사경제활동의 애로사항

1) 사경제활동의 최대 애로사항은 단속(31.6%)과 사업자금(28.3%)(평균)
2) 2015년 이후 사업자금 부족이 증가하고, 단속이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16%가 감소한 단속은 향후 지속적인 추세 확인이 필요함.

다. 경제활동의 자유

1) 경제활동의 자유 부분에서 ① 장사, ② 공장/기업소 설립, ③ 소비품제조, ④ 고용, ⑤ 은행대출 등 거래 항목에서 매우 높은 수요를 나타냄.
2) 평균 약 70~80%가 자유로운 경제를 적극적 지지

라. 경제활동의 저해요인

1) 최고지도자에 대한 적개심은 감소 추세인 반면, 상대적으로 행정기관 및 당 기관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는 추세(2순위 결과 추세 분석 결과)
2) 군부에 대한 불만은 매우 미미한 수준(1.8% 평균)인데, 각종 탈북자 심층 인터뷰 결과도 비슷하며, 인민들이 군의 도움을 받거나 공생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경제발전의 조건

1)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외국과 경협(34.2%), 자본주의 도입(29.9%), 경제제도 개선(26.5%) 순
2) 2018년 경제관리개선이 증가한 이유는 '5.30조치' 등 내부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인민들의 기대치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자본주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추세와 경향성이 일치
3) 과학기술(5.5% 평균)을 강조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과 달리 인민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발표 3

북한 사회보장 실태의 변화

–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북한 사회보장 실태의 변화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장

북한 사회보장의 구조 – 현물배급제에 기반한 낮은 소득보장

현물배급제

- 의식주 생활의 기본 배급제
- 개인 기호에 대한 자급자족

› **생활필수품의 시장 구매 비율 증가**
-시장에서의 적응력에 따른 생활의 차이
› **전반적인 소비 수준의 증가**
-시장에서의 소비 물품의 양적, 질적 확대
-2002. 7.1 조치로 생필품 자체 구입 조치

무상교육 무상치료

-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지원 1+소학교 5+초급중학교 3+고급중학교 3)
-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 **보통교육은 의무제이나 고등교육은 차등**
-졸업생 중 약 20%가 예비시험을 거쳐 추천, 이중 절반이 대학진학
› **전국에 고르게 분포된 의료기관과 호담당 의사제**
-예방의학에 강점을 둔 (질 낮은) 보편적 의료서비스

부분적 소득보장

- 비현실적인 낮은 임금으로 인해 높은 소득대체율의 의미가 사라짐
- 사회보험 재정의 국가 일반 예산 편입으로 사회보험 급여의 권리성은 불확실함
-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시장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보험 수리 체계가 요구됨

북한 의료이용 실태

• 북한 주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대처 방법

구분	빈도	%
• 호 담당 의사(준의)에게만 치료를 받았다.	5	5.7
•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13	14.9
• 시·군 (구역)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8	9.2
• 도 단위 중앙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2	2.3
•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서 먹었다.	44	50.6
• 정식의사는 아니지만 침놓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았다.	5	5.7
•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약초 등을 달여서 먹었다.	8	9.2
계	87	97.7

북한 의료이용 실태

• 북한 의료기관의 실태

구분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	시군(구역) 인민병원	도나 중앙 병원
•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1 1.1%	5 5.7%	5 5.7%
•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2 2.3%	3 3.4%	4 4.6%
•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11 12.6%	17 19.5%	10 11.5%
•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28 32.2%	30 34.5%	9 10.3%
• 이용한 경험이 없다.	43 49.4%	32 36.8%	56 64.4%
계	87 100.0%	87 100.0%	87 100.0%

* 탈북 직전 3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에 대한 응답

북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

• 북한 노인의 주된 생활유지 방법

구분	빈도 (%)
• 북한 정부가 지급하는 연로연금과 쌀 배급을 받아 생활한다.	3 3.4%
• 노인들도 시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한다.	27 31.0%
•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아 생활한다.	48 55.2%
• 주변에 아는 노인이 없어서 잘 모른다.	7 8.0%
계	87 100.0%

북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

• 북한 장애인의 주된 생활유지 방법

구분	빈도 (%)
• 북한 정부가 지급하는 폐질연금과 쌀 배급을 받아 생활한다.	1 1.1%
• 장애인들도 시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한다.	32 36.8%
•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아 생활한다.	36 41.4%
• 별도의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한다	1 1.1%
• 주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없어서 잘 모른다.	17 19.5%
계	87 100.0%

북한의 생활에 대한 국가보장에 대한 만족도

- 영역별 만족도

구분	사회보장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 매우 만족한다	7 8.0%	4 4.6%	5 5.7%	6 6.9%
• 조금 만족한다	8 9.2%	10 11.5%	10 11.5%	6 6.9%
• 보통이다	16 18.4%	20 23.0%	21 24.1%	27 31.0%
• 조금 불만족한다	14 16.1%	18 20.7%	15 17.2%	11 12.6%
• 매우 불만족한다	42 48.3%	35 40.2%	36 41.4%	37 42.5%
계	87 100.0%	87 100.0%	87 100.0%	87 100.0%
2018년 조사 평균(5점 만점)	2.13	2.20	2.23	2.23
2017년 조사 평균(5점 만점)	2.11	2.15	2.66	2.55
2016년 조사 평균(5점 만점)	2.01	-	-	-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

평 화
- 남북의 지속적인 공동 번영을 위한 평화 군축
- 분단체제의 극복은 복지국가 확립을 위한 절대적인 과제

인 권
-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수립은 사회적 기본권 차원의 문제
-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식량, 의료, 교육 등의 기회 제공
- 남한 이주 북한 주민의 다양한 삶의 보장성 강화

협 력
- 북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DGs(지속가능한 개발)에 국제적 협력
- 북한보다 남한이 앞서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기술과 체계 제공
- 인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의 증진

결론

- 남북한의 이질성은 정치·사회구조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변화해왔고, 특히 북한 주민의 인구-건강문제를 야기하여 인구의 질을 크게 하락시켰음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의 속도에 발맞추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남쪽의 지원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며,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보장 체제의 전반적 현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 한반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남쪽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미래의 통합된 사회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지속적 지원과 투자는 급속한 사회통합의 비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음

북한 사회보장 실태의 변화(요약)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북한 사회보장의 특징

가. 북한은 배급제와 노동의무제를 바탕으로 모든 주민의 생활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사회보장 시스템은 매우 단순하며 경제-사회정책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음

나. 보편적인 배급제 붕괴와 함께 무상의료와 소득보장 시스템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무상의료 체계는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보장 제도의 상당부분은 '계획'이 작동하지 않아서 형식적 제도로만 존재하고 그 의미를 상당히 상실했다고 보고되고 있음

2. 조사 항목

가. 2016년 조사부터 사회보장 실태 파악을 위한 문항들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북한에 거주할 때 받았던 사회보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본인 또는 가족의 노령연금(년로연금), 국가공로자연금(공훈연금), 폐질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수급경험을 조사하였고, 2017년 조사에서는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와 무상치료, 노령연금, 국가공로자연금, 폐질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등의 작동여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음

나. 2018년 조사에서는 무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들을 제거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의료이용, 노인, 장애인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국가보장의 영역별 질문은 이전 질문과의 연속성을 유지하였음

3. 북한의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 실태

가. 북한 주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대처방법은 주로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서 먹는 것(50.6%)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중에서는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 등 가장 하단의 의료 전달체계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나. 북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등이 모두 부족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다. 탈북 직전 3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 자체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높게 나타남(리 인민병원 · 진료소 49.4%, 시 · 군 · 구역 인민병원 36.8%, 도나 중앙병원 64.4%)

4. 취약계층의 생활실태

가. 노인들의 경우 55.2%가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아 생활한다고 응답하여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 가족부양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들도 시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한다는 응답도 31.0%로 나타나 노년기 사적 근로활동도 많은 것으로 추정됨

나.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족부양(41.4%)과 시장에서 일해서 생활하는 비율(36.8%)이 높게 나타났음

다. 노인, 장애인 모두 국가의 급여로 생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극히 적게 조사됨

5. 북한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가.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

〈표 1〉 북한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6년	8 (6.0)	2 (1.5)	43 (32.1)	11 (8.2)	70 (52.2)	134 (100.0)	2.01
2017년	7 (5.4)	6 (4.6)	43 (33.1)	12 (9.2)	62 (47.7)	130 (100.0)	2.11
2018년	7 (8.0)	8 (9.2)	16 (18.4)	14 (16.1)	42 (18.3)	87 (100.0)	2.13

나.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표 2〉 북한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7년	8 (6.1)	8 (6.1)	40 (30.5)	15 (11.5)	60 (45.8)	131 (100.0)	2.15
2018년	4 (4.6)	10 (11.5)	20 (23.0)	18 (20.7)	35 (40.2)	87 (100.0)	2.20

다.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

〈표 3〉 북한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7년	13 (9.8)	18 (13.6)	46 (34.8)	21 (15.9)	34 (25.8)	132 (100.0)	2.66
2018년	5 (5.7)	10 (11.5)	21 (24.1)	15 (17.2)	36 (41.4)	87 (100.0)	2.23

라.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

〈표 4〉 북한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7년	7 (5.3)	13 (9.8)	58 (43.9)	22 (16.7)	32 (24.2)	132 (100.0)	2.55
2018년	6 (6.9)	6 (6.9)	27 (31.0)	11 (12.6)	37 (42.5)	87 (100.0)	2.23

마. 각 영역별 만족도 비교

〈표 5〉 각 영역별 만족도 비교

구분	사회보장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2016년	2.01	–	–	–
2017년	2.11	2.15	2.66	2.55
2018년	2.13	2.20	2.23	2.23

※ 주: 5점 만점의 동일한 응답항목으로 측정한 결과임

발표 4

북한주민 의식조사 : 통일인식

–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의식조사: 통일인식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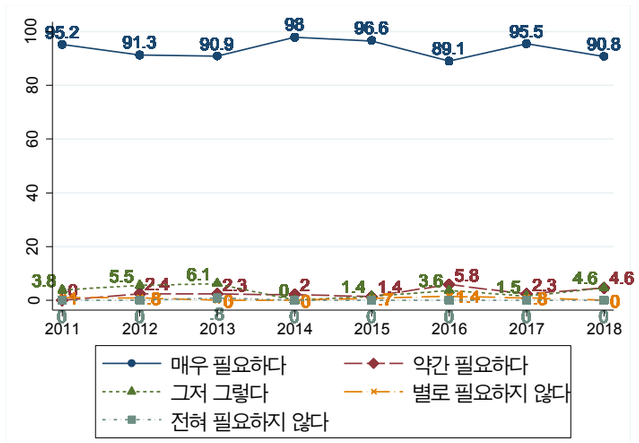
분석 문항

- 통일의 필요성과 바람
- 통일의 이유
- 통일의 방식과 예상 시기
- 통일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기대감
- 통일정책의 효용성
- 심화분석: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배경적 특성

통일의 필요성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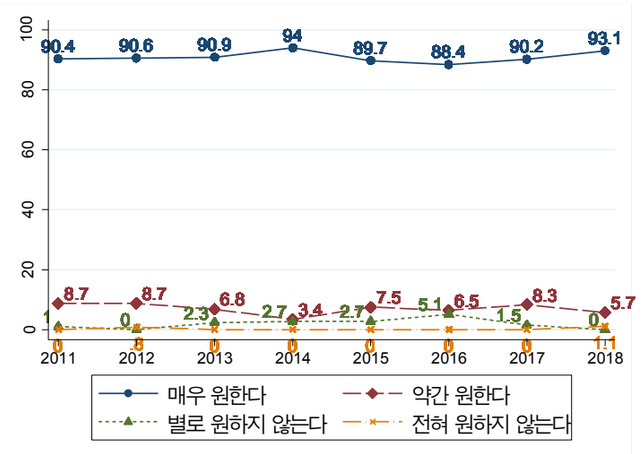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값	4.89	4.84	4.83	4.98	4.94	4.83	4.92	4.86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 매우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바람

문: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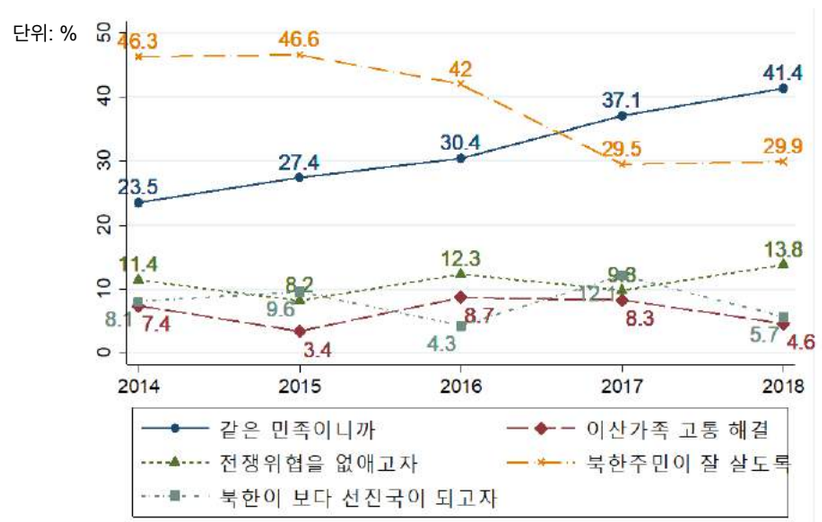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값	3.89	3.89	3.89	3.91	3.87	3.83	3.89	3.91

* 1: 전혀 원하지 않는다 ~ 4: 매우 원한다

통일의 이유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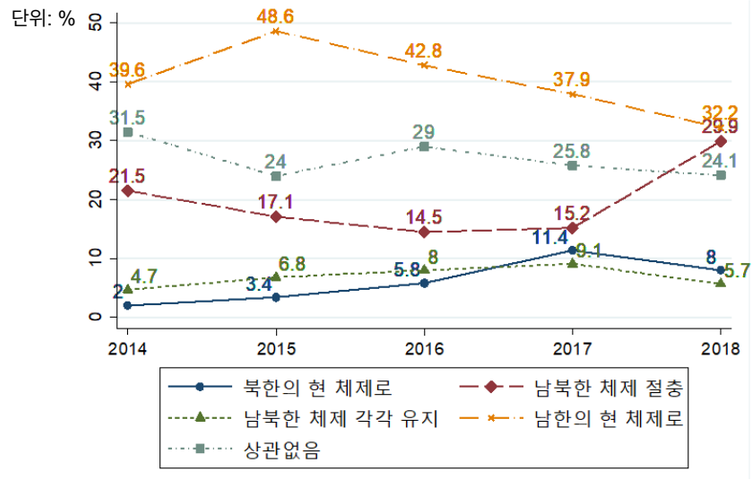
단위: %



통일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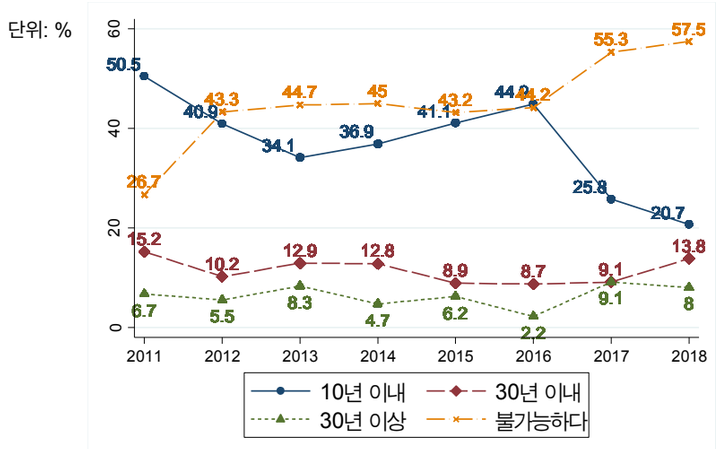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단위: %



통일의 예상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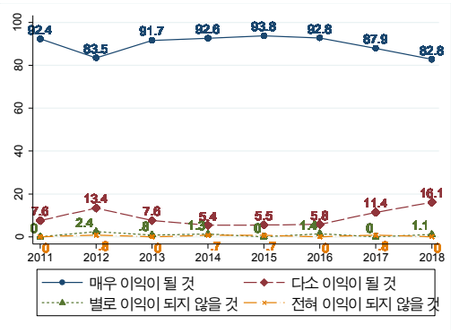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값 (1: 5년 이내~6: 불가능)	3.26	3.90	4.10	3.93	3.92	3.81	4.56	4.64

통일의 사회적/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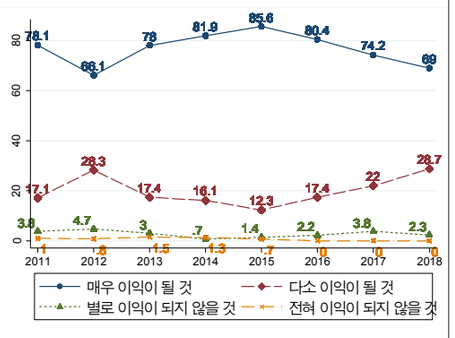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통일의 사회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3.92	3.80	3.91	3.90	3.92	3.91	3.86	3.82

문: "그럼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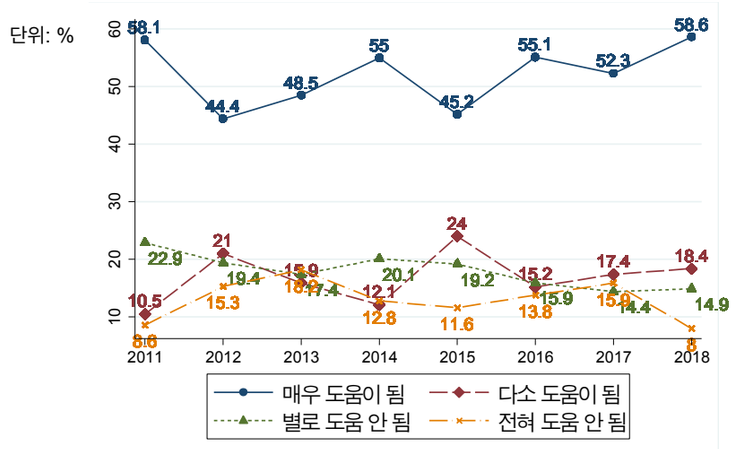
< 통일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3.72	3.60	3.72	3.79	3.83	3.78	3.70	3.67

*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효용성: 대북 인도적 지원

문: "귀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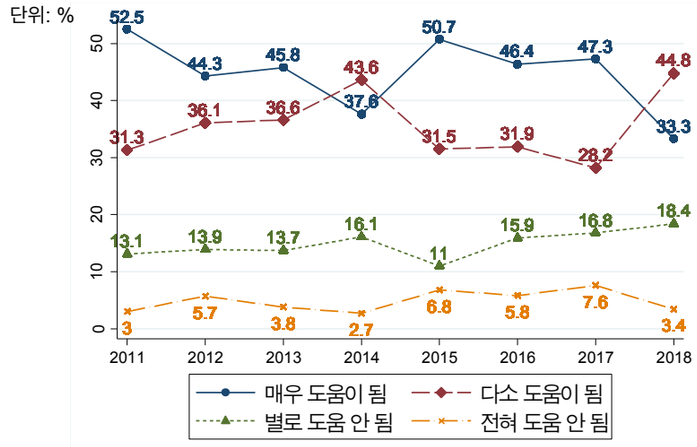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값	3.18	2.94	2.95	3.09	3.03	3.12	3.06	3.28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통일에 대한 효용성: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문: "귀하는 남북간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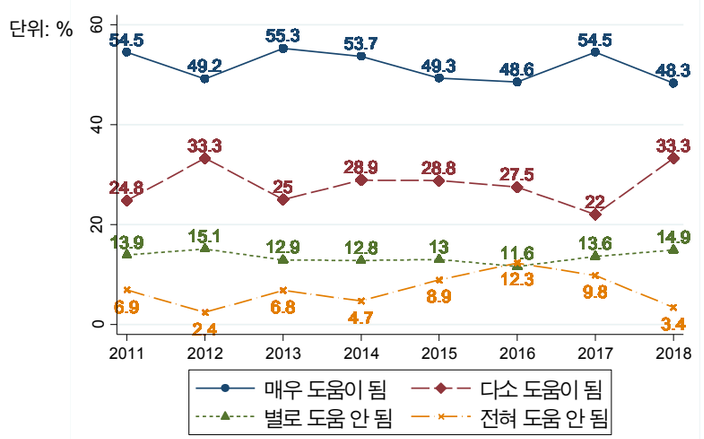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값	3.33	3.19	3.24	3.16	3.26	3.19	3.15	3.08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통일에 대한 효용성: 남북간 경제협력

문: "귀하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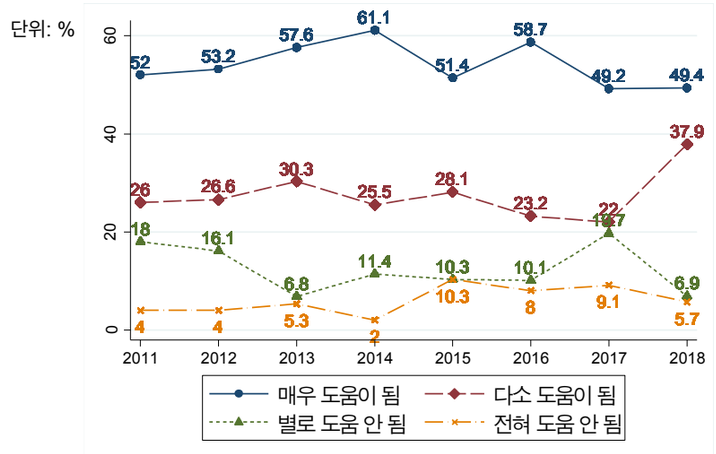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값	3.27	3.29	3.29	3.32	3.18	3.12	3.21	3.26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통일에 대한 효용성: 남북간 정기적 회담

문: "귀하는 남북간 정기적 회담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평균값	3.26	3.29	3.40	3.46	3.21	3.33	3.11	3.31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심화분석: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표 1> 북한주민 통일의식에 대한 로짓 고정효과 모델

변 수	모델 1 (통일의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계수		모델 2 (통일의 이유: 북한주민이 잘 살고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계수		모델 3 (통일의 방식: 남한의 체제로) 계수		모델 4 (통일의 방식: 남북한 체제 절충) 계수		모델 5 (통일 예상시기) 계수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연령	0.013*	(1.01)	-0.013*	(0.99)	-0.017**	(0.98)	0.004	(1.00)	-0.007	(0.99)
여성	-0.314*	(0.73)	0.223	(1.25)	-0.147	(0.86)	-0.221	(0.80)	0.291**	(1.34)
교육수준	-0.085	(0.92)	0.091	(1.09)	-0.002	(1.00)	0.040	(1.04)	-0.089	(0.91)
공식 소득	0.044	(1.04)	0.012	(1.01)	0.067	(1.07)	-0.046	(0.95)	0.083*	(1.09)
비공식 소득	0.038	(1.04)	0.002	(1.00)	0.067*	(1.07)	-0.072*	(0.93)	0.016	(1.02)
2011 년도	N/A		N/A		N/A		N/A		-1.147***	(0.32)
2012 년도	N/A		N/A		N/A		N/A		-0.597**	(0.55)
2013 년도	N/A		N/A		N/A		N/A		-0.411	(0.66)
2014 년도	-0.853***	(0.43)	0.899***	(2.46)	0.560*	(1.75)	-0.600*	(0.55)	-0.520*	(0.59)
2015 년도	-0.624**	(0.54)	0.845***	(2.33)	0.720**	(2.05)	-0.753**	(0.47)	-0.557**	(0.57)
2016 년도	-0.512*	(0.60)	0.402	(1.50)	0.526*	(1.69)	-0.989***	(0.37)	-0.649**	(0.52)
2017 년도	-0.278	(0.76)	0.237	(1.27)	0.247	(1.28)	-0.905***	(0.40)	0.005	(1.01)
상수항	-0.516	(0.60)	-0.544	(0.58)	-0.449	(0.64)	-0.588	(0.56)		
응답자수	630		630		639		639		930	
Log-Likelihood	-382.364		-425.367		-424.336		-301.263		-1322.343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모델 5의 경우 순위로짓 모델을 사용함.

소결

- 통일을 필요하다 여기고 바라는 정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절대다수가 공감
  - 통일의 이유에 있어 민족주의적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경제적·실용적 응답은 약화되는 추세가 이어짐
  - 통일의 방식에 있어서는 남한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남북한의 체제를 절충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
  - 통일의 시기 역시 예년에 비해 늦게 될 것이라 전망
  - ⇒ 김정은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경제적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생겨난 체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통일로 인해 북한이 이익을 얻을 것이란 견해 역시 절대다수가 동의
-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올 들어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전반적으로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친 사회배경변수를 보고자 회귀분석을 한 결과,
  -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경향이 강화되고
  - 비공식 소득이 많을수록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경험을 통해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원하고
  - 공식 소득이 많을수록 북한체제에 대한 신뢰감의 증가로 통일이 일찍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주민 의식조사: 통일인식(요약)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통일의 필요성과 의지

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

1) '매우 필요하다'(90.8%)와 '약간 필요하다'(4.6%)를 합치면, 95.4%의 응답자가 통일을 필요한 것으로 인식
2) 전년도의 97.8%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보임
3) 전체 평균치에 있어서도 4.86으로 예년 수준을 보임

나. 필요성과 별개로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한다고 응답

1) 특히 통일을 '매우 원한다'는 응답은 작년에 비해서도 3% 가까이 증가한 93.1%를 기록하여, 통일을 단순히 당위의 차원이 아닌 바라고 염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전체 평균치 역시 3.91로 예년과 비슷하게 나타남

2. 통일의 이유

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있어 민족주의적 시각이 늘어나고 실용주의적 입장이 줄어드는 경향성은 올해의 조사에서도 유지됨

1)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작년 대비 5% 남짓 늘어난 41.4%를 기록, 조사시작 이래 최고치를 보인 반면,
2)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란 경제적 · 실용적 응답은 역대 최저치였던 작년과 비슷한 수치인 29.9%를 기록하였고, 비슷한 보기인 '북한의 선진국 도약'(5.7%)의 경우 작년(12.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3) '남북 간 전쟁위협 해소'란 안보적 이유는 예년에 비해 증가함(13.8%)

나. 다른 조사문항의 결과와 연결시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김정은 체제 아래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회면서 통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은 약해진 반면,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입장이 증가하였음
2) 조사시점이 되는 2017년이 김정은의 연이은 핵,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었던 시점이었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안보적 위협을 통일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3. 통일의 방식과 예상시기

가. 통일의 방식에 있어 올해에도 북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1) 작년까지 증가세였던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하는 응답이 올해에는 소폭 하락한 8%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2) '남한 체제로의 통일'은 32.2%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3) 반면 남북한 두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는 의견이 29.9%로 작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응답률을 보임
4)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체제가 안정되어 가며 자신들의 체제가 남한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
5) 어느 한 나라의 체제로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통일보다는, 양측의 제도가 절충되는 안을 점차 선호하고 있음이 올해의 조사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나. 통일의 예상시기 역시 비관적인 시각이 예년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하였음

1) 통일이 '5년 이내'와 '10년 이내' 등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 사람은 20.7%에 그쳐 역대 최저치였던 작년에 비해서도 5% 이상 감소
2) 이에 반해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과반을 훌쩍 넘긴 57.5%를 기록하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
3) 각각의 보기를 단순 평균한 수치만을 보더라도 올해의 평균치 4.64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임
4) 김정은이 여러 정치경제적 어려움에도 체제 유지를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보며, 북한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통일이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4. 통일 이익에 대한 기대감

가.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살짝 낮아진 수치를 보임

1) 통일의 집합적 이익의 경우, '매우 이익이 될 것'(82.8%)과 '다소 이익이 될 것'(16.1%)을 합치면 98.9%로,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통일이 북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
2) 하지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란 적극적 응답이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그러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약화된 것으로 조사됨

나. 통일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역시 예년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1) 통일이 자신에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란 응답이 69%로 작년에 비해 5% 이상 감소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란 응답(28.7%)이 그만큼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평균점수(3.67)를 볼 때 예년에 비해 조금 낮아진 수치를 보임

5. 통일정책의 효용성

가. 남한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이 증가

1) '매우 도움이 될 것'(58.6%)이다와 '다소 도움이 될 것'(18.4%)이라는 응답 모두 작년에 비해 증가
2) 평균치를 보아도 조사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의 응답을 보임
3) 본 설문항목의 시점이 북한에 계실 때가 아닌 현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이후 이루어진 여러 대북 완화정책이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됨

나.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됨

1) '매우 도움이 될 것'(33.3%)이란 응답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평균치(3.08)에 있어 조사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2) 2018년 2월의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사회문화적 이벤트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조금 예상을 벗어난 결과라 할 수 있음
3) 가장 낮은 차원의 교류라 할 수 있는 사회문화 교류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계속되었지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억들이 북한주민의 의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가져올 효용성은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음

1)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8.3%로 작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33.3%로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2) 평균치 역시 3.26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3)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의 중단과 국제적 경제제재가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의 회복을 통해 제재 완화와 북한 경제의 회복, 나아가 통일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는 심리가 담겨있다고 풀이할 수 있음

라. 마지막으로, 남북간 정기회담에 대한 인식 역시 작년에 비해 상승

1) '매우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49.4%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37.9%)
2) 평균값 역시 예년 수준을 회복
3) 2018년 들어 남북 정상에 이어 북미 정상까지 회담을 가지며 통일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남북 간의 정기적 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7. 심화분석

〈표 1〉 북한주민 통일의식에 대한 로짓 고정효과 모델

변 수	모델 1 (통일의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모델 2 (통일의 이유: 북한주민이 잘 살고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모델 3 (통일의 방식: 남한의 체제로)			모델 4 (통일의 방식: 남북한 체제 절충)			모델 5 (통일 예상시기)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연령	0.013	*	(1.01)	−0.013	*	(0.99)	−0.017	**	(0.98)	0.004		(1.00)	−0.007		(0.99)
여성	−0.314	*	(0.73)	0.223		(1.25)	−0.147		(0.86)	−0.221		(0.80)	0.291	**	(1.34)
교육수준	−0.085		(0.92)	0.091		(1.09)	−0.002		(1.00)	0.040		(1.04)	−0.089		(0.91)
공식 소득	0.044		(1.04)	0.012		(1.01)	0.067		(1.07)	−0.046		(0.95)	0.083	*	(1.09)
비공식 소득	0.038		(1.04)	0.002		(1.00)	0.067	*	(1.07)	−0.072	*	(0.93)	0.016		(1.02)
2011년도	N/A			N/A			N/A			N/A			−1.147	***	(0.32)
2012년도	N/A			N/A			N/A			N/A			−0.597	**	(0.55)
2013년도	N/A			N/A			N/A			N/A			−0.411		(0.66)
2014년도	−0.853	***	(0.43)	0.899	***	(2.46)	0.560	*	(1.75)	−0.600	*	(0.55)	−0.520	*	(0.59)
2015년도	−0.624	**	(0.54)	0.845	***	(2.33)	0.720	**	(2.05)	−0.753	**	(0.47)	−0.557	**	(0.57)
2016년도	−0.512	*	(0.60)	0.402		(1.50)	0.526	*	(1.69)	−0.989	***	(0.37)	−0.649	**	(0.52)
2017년도	−0.278		(0.76)	0.237		(1.27)	0.247		(1.28)	−0.905	***	(0.40)	0.005		(1.01)
상수항	−0.516		(0.60)	−0.544		(0.58)	−0.449		(0.64)	−0.588		(0.56)			
응답자수	630			630			639			639			930		
Log-Likelihood	−382.364			−425.367			−424.336			−301.263			−1322.343		

비고 :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모델 5의 경우 순위로짓 모델을 사용함.

가. 먼저 많은 연도 더미변수들의 영향력이 (비교기준인 2018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나온 가운데, 계수의 부호를 통해 올해 결과의 시계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1)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를 꼽은 응답이 올해의 조사결과(2018년)에 비교하여 부(否)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올해 해당항목에 대한 응답이 예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을 의미
2) 반면 통일의 이유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나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와 같은 경제적 이유를 답한 것에는 기존의 조사년도 전반적으로 정(正)의 영향력이 나타남으로써, 올해 해당항목의 응답률이 예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게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3) 통일의 방식으로 '남한의 현 체제'를 꼽은 응답에 대해서도 예년의 조사결과들이 유의미한 정(正)의 영향력을 보임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올해의 응답이 예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게 나왔음을 알 수 있음
4) 반면 통일의 방식으로 '두 체제의 절충'을 선택한 응답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올해 해당항목의 응답이 예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이 확인됨
5) 마지막으로, 통일의 예상시기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부(否)의

영향력이 관찰됨으로써 올해 조사된 북한주민의 통일 예상시기가 예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늦게, 즉 부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나. 다음으로 통일의 이유에 대한 두 모델(모델 1,2)의 경우, 연령 변수가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1) 나이가 많을수록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반면, 경제적 필요에 의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것으로
2) 반면 젊은 층의 경우 민족주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 실용적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남

다. 통일의 방식(모델 3.4)에 있어서는 비공식 소득의 영향력이 눈에 띔

1) 북한에 있을 때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남한의 체제로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비공식적 소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를 많이 경험하고 자본주의의 논리에 노출이 되었음을 의미하기에, 그런 사람일수록 통일의 방식으로 남한의 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반면 공식적 소득수준은 통일의 방식에 대한 의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라. 하지만 통일의 예상시기(모델 5)에 있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공식적 소득이었음

1) 북한에 있을 때 공식소득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체제의 보장을 잘 받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집단은 북한 정권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보다 긍정적 견해를 가질 수 있음
2) 이 경우, 북한의 현 체제가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겨 통일의 시기를 늦추어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8. 소결

가. 통일을 필요하다 여기고 바라는 정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 통일의 이유에 있어 민족주의적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경제적 · 실용적 응답은 약화되는 추세를 보임
2) 통일의 방식에 있어서는 남한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남북한의 체제를 절충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음
3) 통일의 예상시기에 있어서도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기며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란 희망적 응답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 김정은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경제적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생겨난 체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나. 하지만 여전히 통일로 인해 북한이 이익을 얻을 것이란 견해엔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1) 통일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역시, 북한사회의 전반적 이익에 대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함
2)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음

다.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올 들어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전반적으로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1) 사회문화교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대북지원, 경제협력, 정기회담 – 모두에서 작년에 비해 좋은 평가를 보임
2) 특히 대북지원의 효용성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하는 등,

통일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라. 이러한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친 사회배경변수를 보고자 회귀분석을 한 결과,

1)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경향이 강화되고,
2) 비공식 소득이 많을수록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경험을 통해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원하고,
3) 공식 소득이 많을수록 북한체제에 대한 신뢰감의 증가로 통일이 일찍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발표 5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문인철 (서울연구원)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문인철
(서울연구원)

목차

Ⅰ.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1. 대남인식
2. 대남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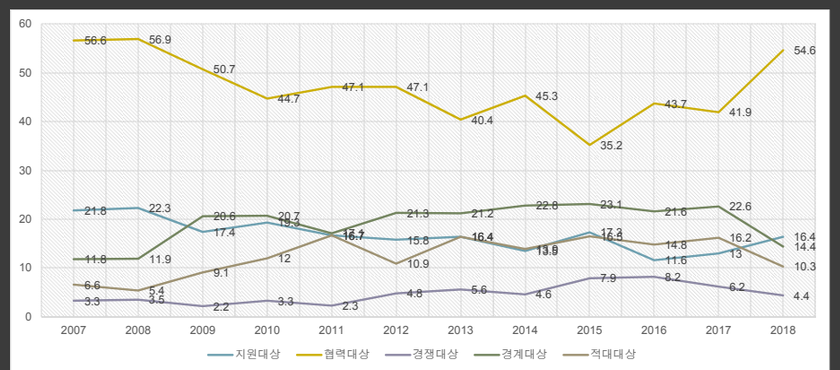
Ⅱ.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
1. 남한문화 경험 정도
2. 남한문화 친숙도
3. 남한문화 유통경로
4. 남한문화 호감도 변화
5. 남북한 이질성에 대한 인식

Ⅲ. 북한주민의 북핵 및 대남 위협 인식
1.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 대남 북핵위협 인식

Ⅳ.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1. 대북지원 인지도
2. 대북지원 규모 평가
3.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4. 대북경제 투자 평가
5. 14.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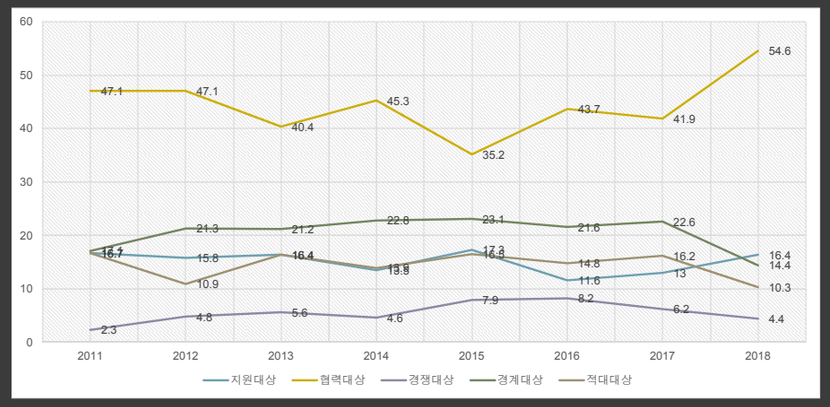
1. 대남인식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했는가?)



- 2017년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남 비난에도 불구하고 **'협력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이 **41.9%(2017년)**에서 **54.6%(2018년)**로 대폭 **증가**하였음.
- 반면, **'경계대상'**은 **22.6%**에서 **14.4%**로, **'적대대상'**은 **16.2%**에서 **10.3%**로 감소하였음.
- 이는 북미갈등 고조 등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이라는 반작용 때문일 수도 있음.
-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2018년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음.
- 또는 2017년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남북협력의 필요성 때문일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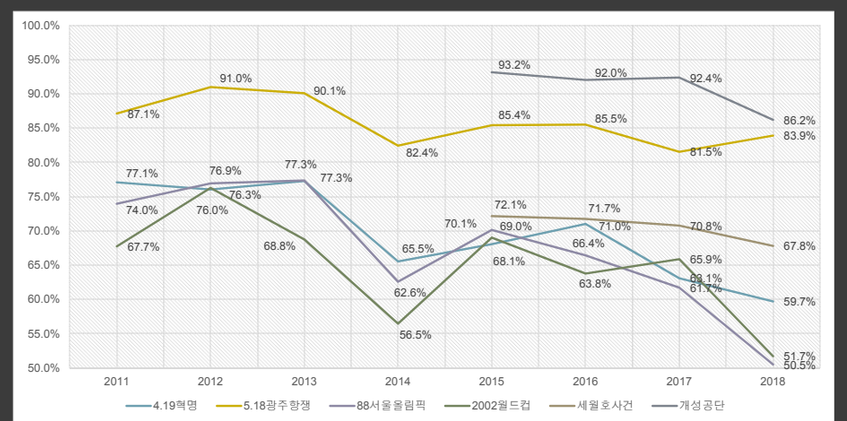
1-1.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이 대폭 증가하였음.
- '적대대상', '경계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감소하였음.

2. 대남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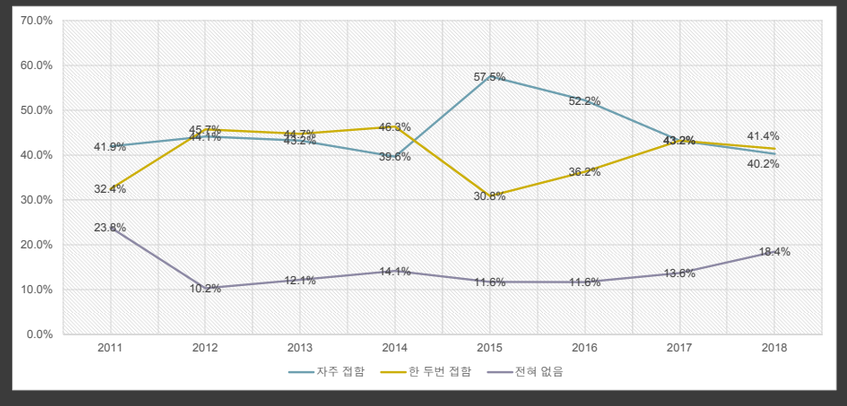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



- '개성공단(92.4% → 86.2%)', '세월호사건(70.8% → 67.8%)', '2002월드컵(65.9% → 51.7%)', '88서울올림픽(61.7% → 50.5%)', '4.19혁명(61.7% → 59.7%) 등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대부분 감소하였음.
- 반면, '5.18광주항쟁'에 대한 인지도는 81.5% → 81.5%로 소폭 상승하였음.
- 단순히 들어본 정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을 수도 있고, 정말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음.
- 하지만 기본적으로 50%~80%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대남인지도는 낮지 않음.

3. 남한문화 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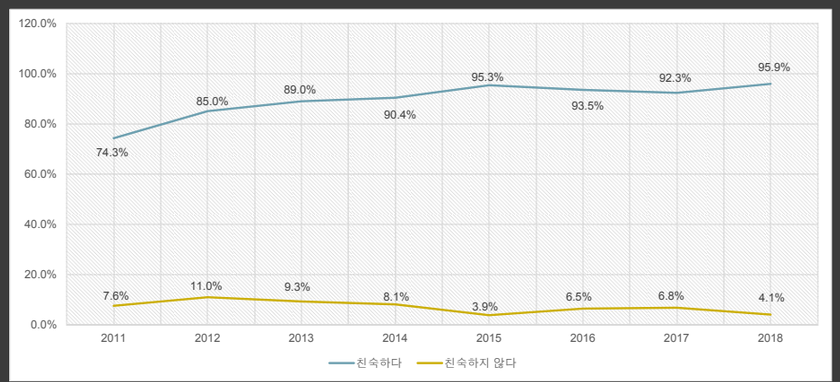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



- 남한문화의 경험정도가 2017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반면, '전혀없음'에 대한 응답률은 2017년 13.6%에서 2018년 18.4%로 소폭 상승했음.
-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에 따른 것일 수 있음.

4. 남한문화 친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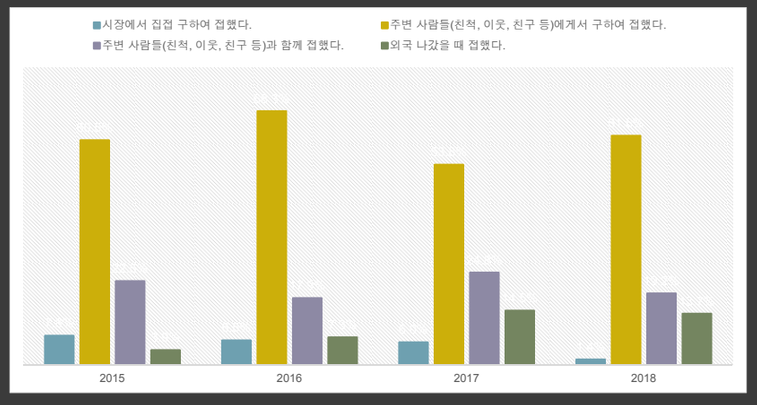
(남한문화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 남한문화에 '친숙하다'는 응답률은 2017년 92.3%에서 2018년 95.9%로 소폭 상승하였음.
- 반면, '친숙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2017년 6.8%에서 2018년 4.1%로 소폭 하락했음.
- 2017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친숙하다'는 응답률이 2014년 이래로 90%을 유지,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는 높은 수준임.

5. 남한문화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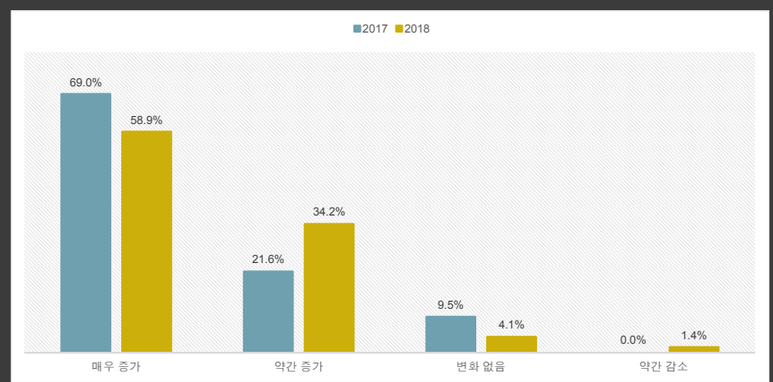
(남한문화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했는가?)



- 2015년 이래로 북한주민은 **'친척,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로 남한문화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2017년 **53.8%**에서 2018년 **61.6%**로 소폭 증가하였음.

6. 남한문화 호감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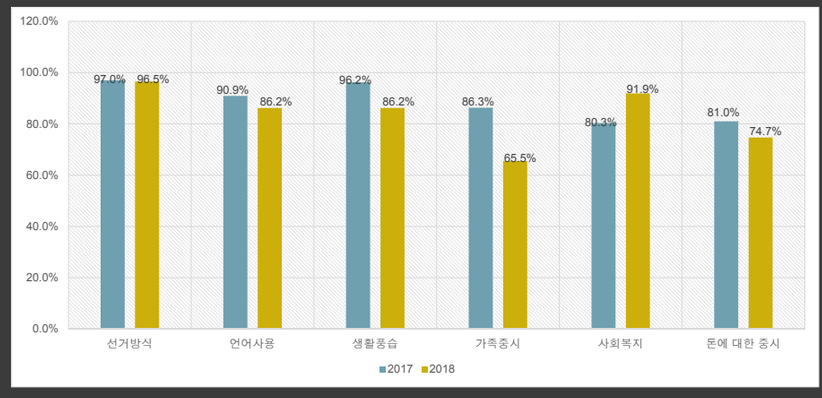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증가'**는 **69.0%**에서 **58.9%**로 감소한 반면, **'약간 증가'**는 **21.6%**에서 **34.2%**로 증가하였음.
- 남한문화에 대한 호감도(매우 증가 + 약간 증가)는 2017년 **90.6%**에서 2018년 **93.1%**로 소폭 상승하였음.
- 한편, **'변화없음'**이라는 응답은 **9.5%**에서 **4.1%**로 감소하였음.

7.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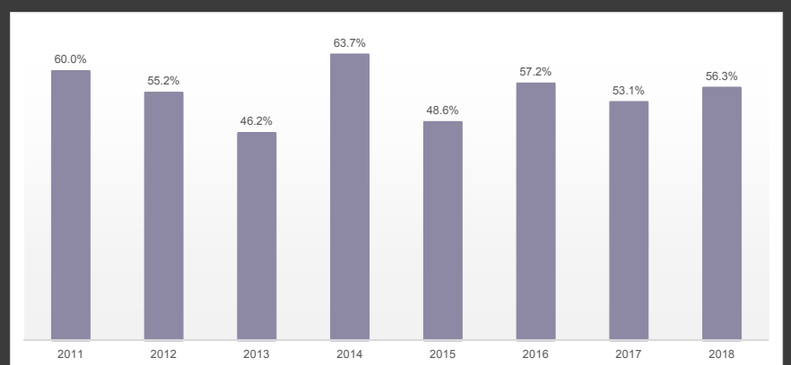
(귀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북한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선거방식'**에 대한 이질성은 **96.5%**로 가장 크고, **'가족중시'**에 대한 이질성은 **65.5%**로 가장 작았음.
- 2017년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만 **+11.6%p**로 상승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음.
- 이중 **'가족중시'**가 **-20.8%p**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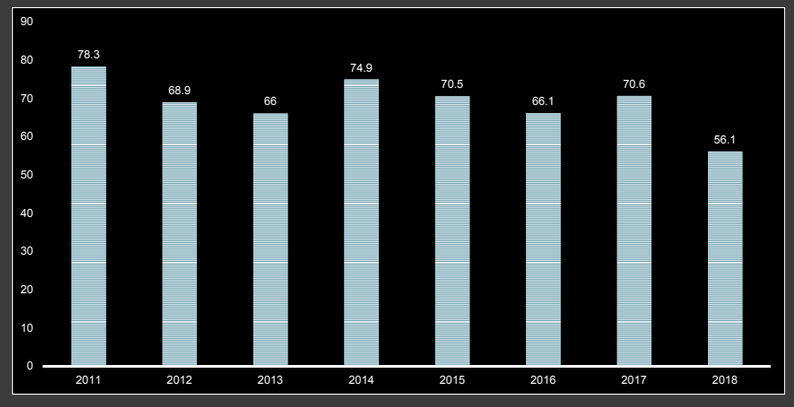
8.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했는가?)



-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것"이라는 북한주민의 안보불안 의식은 **53.1%(2017년)**에서 **56.3%(2018년)**로 소폭 상승했음.
- 2017년 북한 당국이 한반도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한 및 미국에게 돌리고, 또 군사적 호전성을 강조 ·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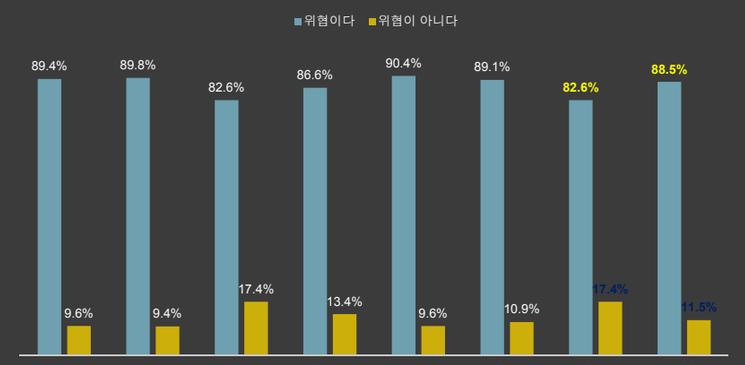
8-1. 남한주민의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침공할 것"이라는 남한주민의 안보불안 의식은 **70.6%(2017년)** → **56.1%(2018년)**으로 대폭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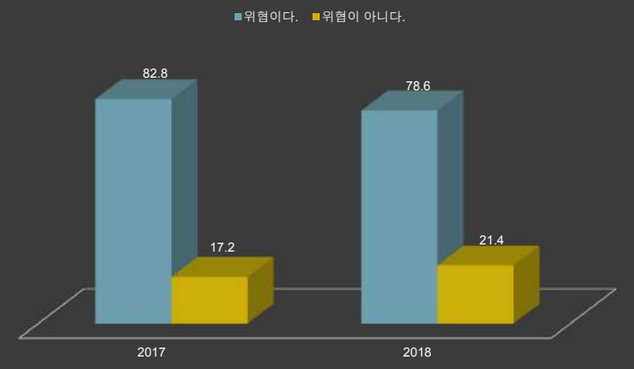
9. 대남 북핵위협 인식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으로 생각했나?)



- 북한 핵무기의 대남 위협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82.6%(2017년)**에서 **88.5%(2018년)**로 전년대비 **+5.9%p** 상승했음.
- 이는 2017년 북미 핵 갈등 고조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때문으로 보임.
- 가령, 대북제재, 사드 배치, 전술 핵무기 재배치 검토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남 비난 및 위협과 동시에 미사일 실험 성공, 제6차 핵실험 등 핵무력 완성 선언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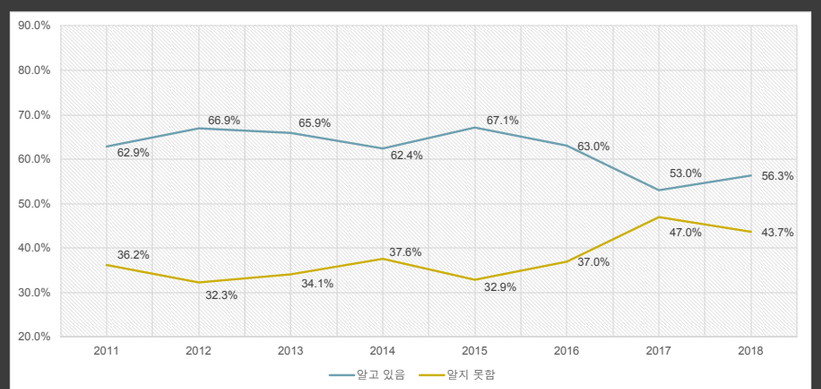
9-1. 남한주민의 북핵위협 의식



- 북한 핵무기의 대남 위협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은 낮아졌음.
- 북한주민에게는 2017년의 인식을 물은 반면, 남한주민에게는 2018년의 인식을 물은 데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라고 보임.
- 2019년 조사에서는 올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10. 대북지원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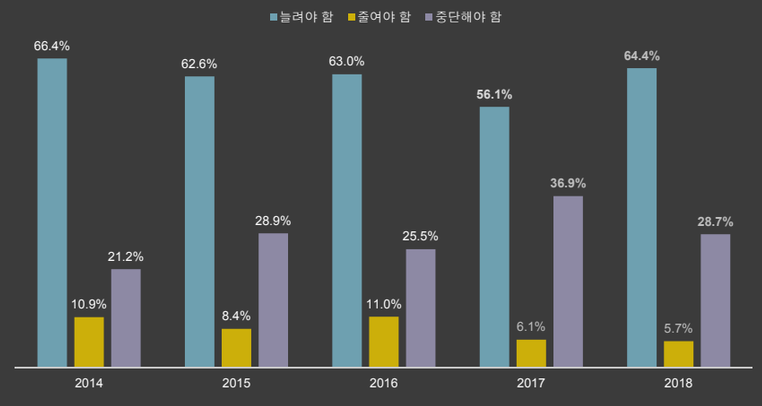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는 **53.0%(2017년)**에서 **56.3%(2018년)**로 소폭 상승했음.

11. 대북지원 규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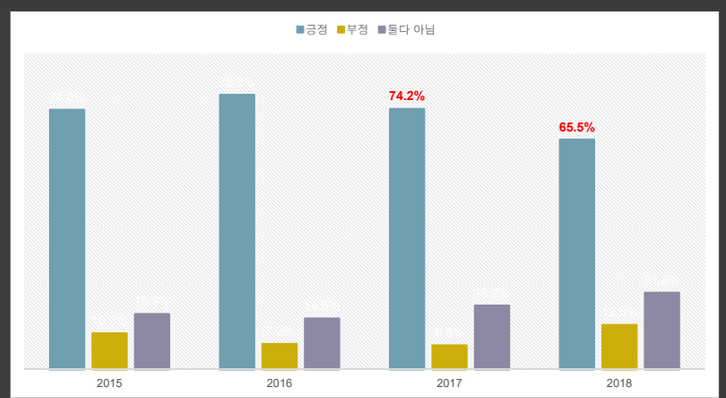
(북한에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북한주민들의 **64.4%**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전년대비 **+8.3%p** 상승했음.
- 한편,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36.9%**에서 **28.7%**로 감소했고,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6.1%**에서 **5.7%**로 소폭 감소했음.
- 이는 대북제재, 경제악화로 인한 국제사회 또는 남한의 지원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12.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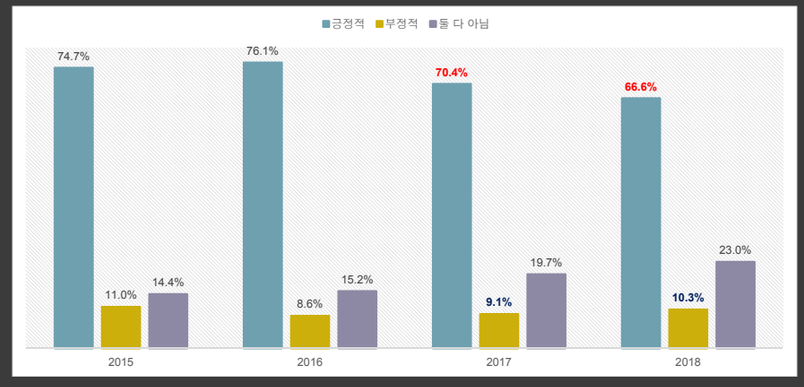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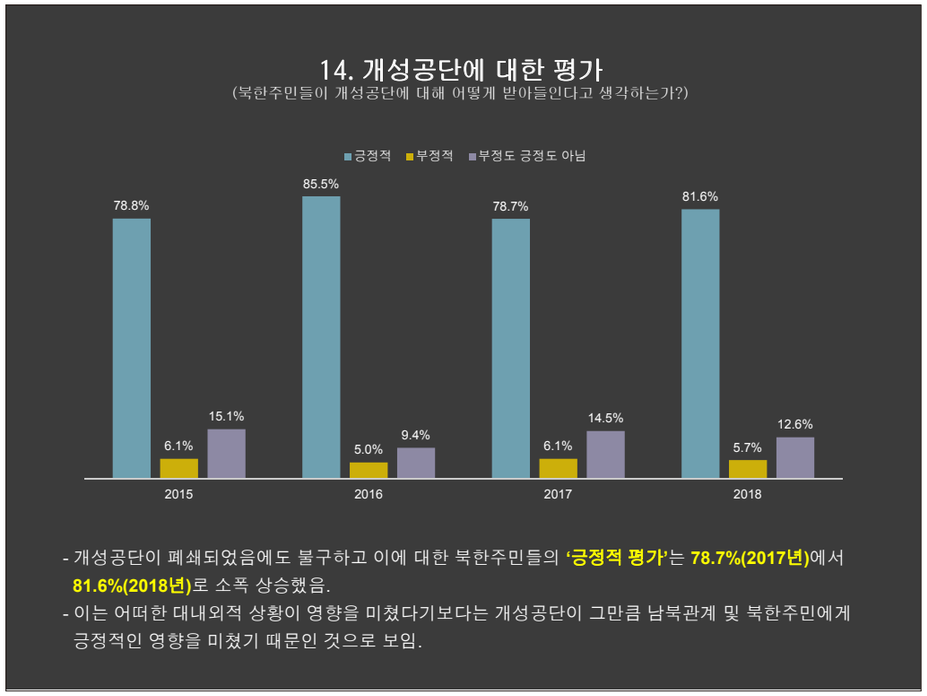
-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주민의 **65.5%**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하지만 **2017년과 비교할 때 -8.7%p 감소했고, 부정적 평가는** 6.8%에서 **12.6%로 +5.8%p 상승했음**.
-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상승했음.
- 2018년 북한 당국이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북한주민들도 남한의 일방주의적 지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13. 대북경제 투자 평가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가?)



-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를 묻는 질문에 북한주민의 **66.6%**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하지만 이는 전년(70.4%)보다 -3.8%p 하락한 수치이며, 나아가 9.1%(2017년)에서 10.3%(2018년)로 부정적 평가는 상승했음.
- 북한주민들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한이 매우 많이 발전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 앞서 대북지원 문제와 같이 북한주민은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를 남한의 우월성에 기반을 둔 일방적 지원 개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요약)

문인철 (서울연구원)

1. 북한주민의 대남 인식

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1)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이 증가했음.

가)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은 2017년 41.9%에서 2018년 54.6%로 증가했음.

나) 반면, '경계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2.6%에서 14.4%로 감소했고, '적대대상'도 16.2%에서 10.3%로 감소하였음.

다) 남한을 '경쟁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은 2017년 6.2%에서 2018년 4.4%로 감소추세에 있음.

라) 이는 2017년 북미갈등 고조 등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이라는 반작용 때문일 수도 있음.

마)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2018년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음.

바) 또는 2017년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남북협력 및 개선의 필요성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음.

나.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1)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가)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4.19혁명, 5.18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세월호사건, 개성공단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했음.

나) 그 결과 ‘5.18광주항쟁(81.5% → 81.5%)’를 제외하고 ‘개성공단(92.4% → 86.2%)’, ‘세월호사건(70.8% → 67.8%)’, ‘2002월드컵(65.9% → 51.7%)’, ‘88서울올림픽(61.7% → 50.5%)’, ‘4.19혁명(61.7% → 59.7%)’ 등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대부분 감소하였음.

다) 단순히 들어본 정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을 수도 있고, 정말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음.

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50%~80%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대남인지도가 낮지 않음.

2.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

가.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 정도

1)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정도는 2017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가)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자주 접했다’라는 응답은 43.2%(2017년)에서 40.2%(2018년)로 소폭 감소하였음.

나) 한편, ‘한두 번 접함’이라는 응답도 43.2%(2017년)에서 41.4%(2018년)로 소폭 감소하였음.

다) 반면, ‘전혀 없음’에 대한 응답률은 2017년 13.6%에서 2018년 18.4%로 소폭 상승했음.

라) 이는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나.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

1)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는 2014년 이래로 90%대를 유지하고 있음.

가) 북한주민들에게 “남한문화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를 묻는 질문에 ‘친숙하다’는 응답률은 92.3%(2017년)에서 95.9%(2018년)로 소폭 상승하였음.

나) 반면, ‘친숙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6.8%에서 2018년 4.1%로 소폭 하락하였음.

다. 북한주민은 남한문화 유통경로

1) 2015년 이래로 북한주민들은 ‘친척,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로 남한문화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가)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은 6.0%(2017년)에서 1.4%(2018년)로 감소했음.

나) ‘외국 나갔을 때 접했다’는 응답은 14.5%(2017년)에서 13.7%(2018년)로 감소했음.

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은 24.8%(2017년)에서 19.2%(2018년)로 감소했음.

라) 반면,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해서 접했다’는 응답은 2017년 53.8%에서 2018년 61.6%로 소폭 증가하였음.

마) 북한 당국의 통제로 인해 주민들은 시장과 외국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암암리에 남한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보임.

라.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호감도 변화

1) 남한문화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호감도(매우 증가 + 약간 증가)는 2017년 90.6%에서 2018년 93.1%로 소폭 상승하였음.

가)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질문을 북한주민에게 한 결과 '매우 증가' 했다는 답변은 69.0%(2017년)에서 58.9%(2018년)로 감소한 반면, '약간 증가' 했다는 답변은 21.6%(2017년)에서 34.2%(2018년)로 증가하였음.

나) 반면,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5%에서 4.1%로 감소하였음.

다) '남한문화 친숙도'가 기본적으로 9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주민들은 남한문화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음.

마.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1) 북한주민들은 남북한 간에 이질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가) 북한주민들에게 "남한과 북한 간에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선거방식(96.5%)', '언어사용(86.2%)', '생활풍습(86.2%)', '가족중시(65.5%)', '사회복지(91.9%)', '돈에 대한 중시(74.7%)' 등 남북한 간에 차이가 크다고 답변하였음.

나) 이중 '선거방식'에 대한 이질성은 96.5%로 가장 컸고, '가족중시'에 대한 이질성은 65.5%로 가장 작았음.

다) 2017년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만 +11.6%p로 상승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음.

라) 특히, '가족중시'는 -20.8%p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음.

3. 북한주민의 북핵 및 대남 위협 인식

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1)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것"이라는 북한주민의 대남 안보불안 의식은 53.1%(2017년)에서 56.3%(2018년)로 소폭 상승했음.

가) 2017년 북한 당국이 한반도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한 및 미국에게 돌리고, 또 이들의 군사적 호전성을 강조 · 비난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나. 북한주민의 대남 북핵위협 의식

1) 북한 핵무기의 대남 위협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82.6%(2017년)에서 88.5%(2018년)로 전년대비 +5.9%p 상승했음.

가) 반면, 위협이 아니라는 응답은 17.4%에서 11.5%로 감소하였음.

나) 이는 2017년 북미 핵 갈등 고조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다) 가령, 대북제재, 사드배치, 전술 핵무기 재배치 검토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남 비난 및 위협과 동시에 미사일 실험 성공, 제6차 핵실험 등 핵무력 완성 선언 등이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라) 반면, 북한 핵무기의 대남 위협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은 82.8%에서 78.6%로 소폭 감소했음.

마) 북한주민에게는 2017년의 인식을 물은 반면, 남한주민에게는 2018년의 인식을 물은 데서 나타나는 차이점임.

바) 따라서 2019년 조사에서는 올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4.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가.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도

1)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지도는 53.0%(2017년)에서 56.3%(2018년)로 소폭 상승했음.

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개인적 편찬에 따른 것으로 보임.

나.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 평가

1) "북한에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64.4%(+8.3%p)의 북한주민들은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가)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36.9%에서 28.7%로 감소했음.
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6.1%에서 5.7%로 소폭 감소했음.
다) 이는 대북제재, 경제악화로 인한 국제사회 또는 남한의 지원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다.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1)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주민들의 65.5%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가) 하지만 2017년과 비교할 때 -8.7%p 감소했음.
나) 반면, 부정적 평가는 6.8%에서 12.6%로 +5.8%p 상승했음.
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상승했음.
라) 2018년 북한 당국이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북한주민들도 남한의 일방주의적 지원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라.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 평가

1)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를 묻는 질문에 북한주민들의 66.6%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가) 하지만 이는 전년(70.4%)보다 -3.8%p 하락한 수치이며, 나아가 9.1%(2017년)에서 10.3%(2018년)로 부정적 평가는 상승했음.
나) 북한주민들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한이 매우 많이 발전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다) 앞서 대북지원 문제와 같이 북한주민은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를 남한의 우월성에 기반을 둔 일방적 지원 개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큼.

마.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1)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긍정적 평가'는 78.7%(2017년)에서 81.6%(2018년)로 소폭 상승했음.

가) 이는 어떠한 대내외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개성공단이 그만큼 남북관계 및 북한주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발표 6

북한 실태 조사

–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 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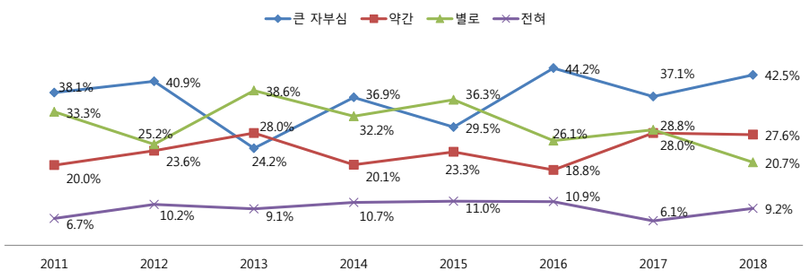
엄현숙(북한대학원대학교)

목 차

-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 2.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 3. 김정은 직무 평가
- 4. 사회통제 유지정도
- 5. 비판행위 정도
- 6. 북한정권 유지기간 예상
- 7. 핵무기 보유 평가
- 8. 경제 악화의 원인
- 9.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
- 10. 생활총화 출석률
- 11. 경제체제 선호도
- 12. 다른 지역 방문 정도
- 13. 집단과 개인 우선 순위
- 14. 월 소득 수준
- 15. 외부소식 접촉 경로
- 16. 언론에 대한 신뢰도
- 17. 인권 언어 사용
- 18. 인권 정책 평가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에 비하여 자부심은 2017년 37.1%에서 2018년 42.5%로 5.4% 상승하였음.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은 2017년 28.8%에서 2018년 20.7%로 8.1%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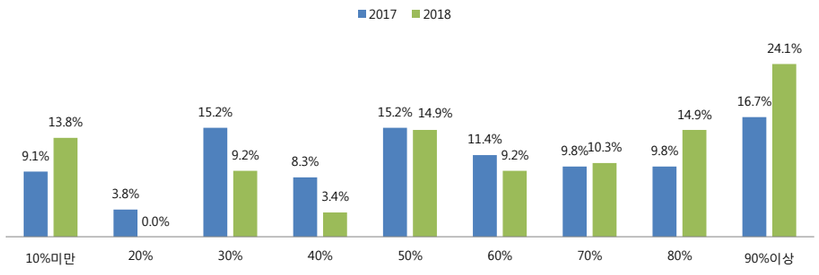
-전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011년 부터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임.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전반적으로 높음.

- 북한의 지도사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상 자체가 갖는 의미에서 자부심이 높게 나타난 것.

2.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는가?)



-2017년에 비하여 2018년 김정은 지지도는 70% 이상에서 증가세를 보인다.

-70%에서 2017년 9.8%에서 2018년 10.3% 소폭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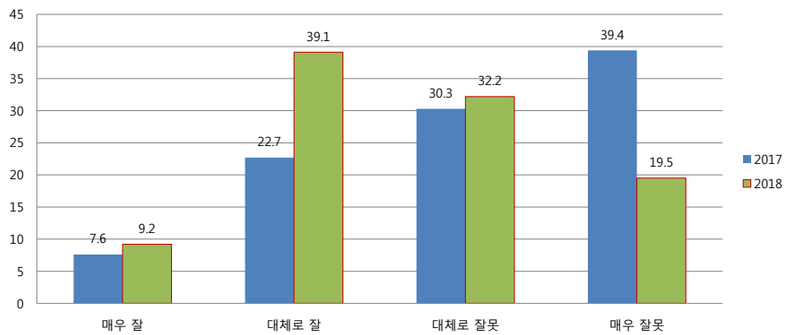
-80%에서 2017년 9.8%에서 2018년 14.9%로 상승 폭이 커졌음.

-90%이상에서 2017년 16.7%에서 2018년 24.1%로 7.4% 상승하였음.

- 젊은 이미지와 파격적인 행보에 따른 일종의 기대심리가 투영된 것.

3. 김정은 직무 평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써 직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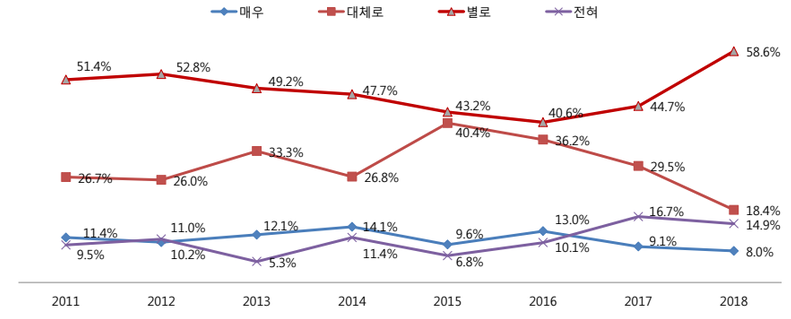
-2018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매우 잘+대체로 잘)는 48.3%(9.2%+39.1%)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 (대체로 잘못+매우 잘못)는 51.7%(32.2%+19.5%)보다 3.4% 낮다.

-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017년 22.7%에서 2018년 39.1%로 16.4% 높은 반면,

-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017년 39.4%에서 2018년 19.5%로 19.9% 낮게 나타남.

4. 사회통제 유지 정도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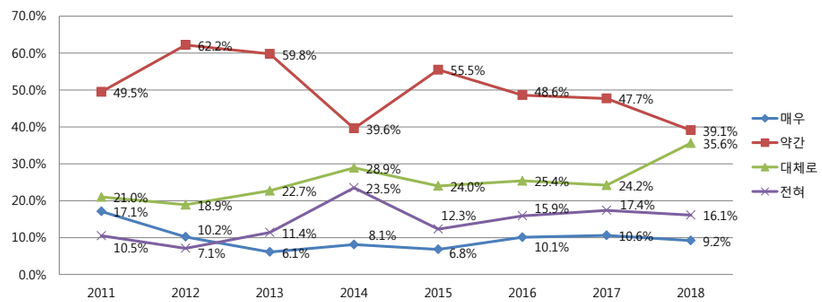
- 사회통제가 별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은 2017년에 44.7%에서 2018년 58.6% 13.9% 높게 나타난 반면,

-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017년 29.5%에서 2018년 18.4%로 11.1% 감소하였음.

- 사회통제는 2017년 38.6%(9.1%+29.5%)에서 2018년 26.4%(8.0%+18.4%)로 12.2% 낮아졌음.

5.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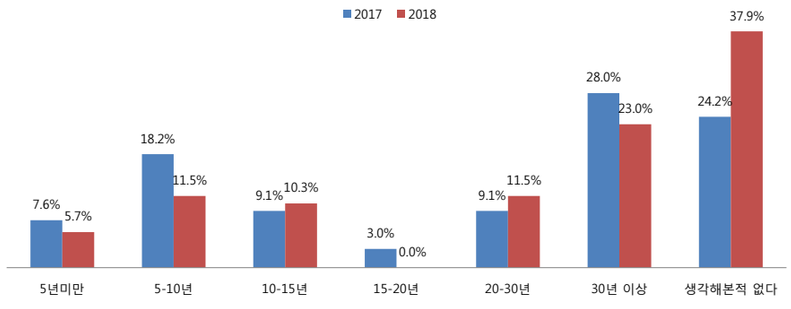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 비판행위가 약간 있다는 인식은 2017년 47.7%에서 2018년 39.1%로 8.6% 감소했음.
- 대체로 없다는 인식은 2017년 24.2%에서 2018년 35.6%로 11.4% 증가하였음.
- 비판행위가 있다는 인식이 48.3%(매우 많다 + 약간 있다)로 없다는 인식 51.7%(대체로 없다 + 전혀 없다)보다 3.4% 낮게 나왔다.
- 북한 정부에 대한 소극적인 비판 행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줌.

6. 북한 정권 유지 기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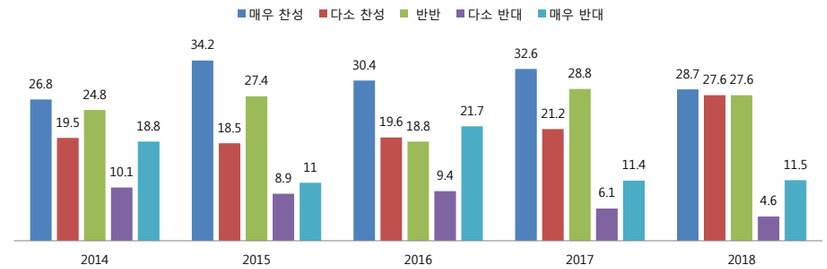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 예상 유지기간은 5~10년으로 보는 인식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데, 2017년 18.2%에서 2018년 11.5%로 나타남, 예상 유지기간을 30년 이상 보는 인식 역시 2017년 28%에서 2018년 23%로 낮아짐.
- 반면에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인식은 2017년 24.2%에서 2018년 37.9%로 높아짐..
- 예상 유지 기간을 생각해 본적 없다는 인식이 큰 변화를 나타내는 데,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보다는 북한 주민이 스스로의 생존방식을 취해감에 따라 정권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7. 핵무기 보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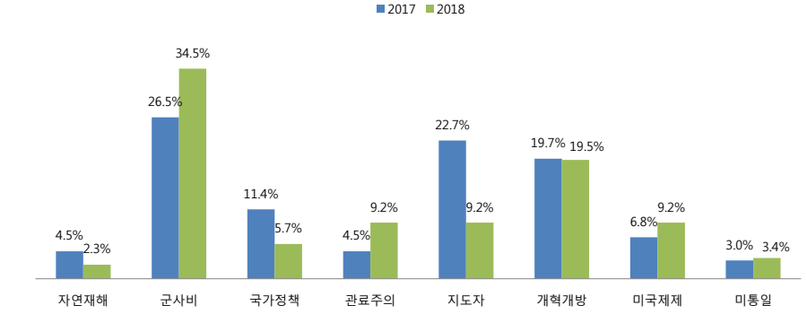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 찬성의 경우 2017년 53.8%(매우 찬성 32.6%+다소 찬성 21.2%)에서 2018년 56.3%(매우 찬성 28.7%+다소 찬성 27.6)로 소폭 상승을 나타냄.
- 반반의 경우 2018년에 소폭 하락을 나타내는데, 2017년 28.8%에서 2018년 27.6%로 1.2% 낮음.
- 반대는 2017년 17.5%(다소 반대 6.1%+매우 반대 11.4%)에서 2018년 16.1%(다소 반대 4.6%+매우 반대 11.5%)로 감소했음.
- 찬성이 반대 의견 보다 훨씬 높게 나옴. 보유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줌.

8. 경제 악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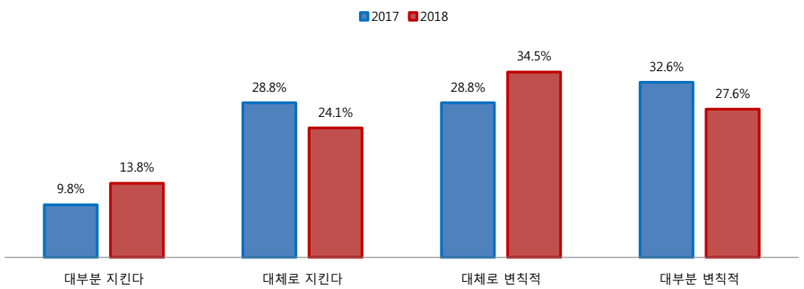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



- 군사비 지출은 2017년 26.5%에서 2018년 34.5%로 8% 증가하였음.
- 국가 정책의 책임은 감소한 반면, 관료주의는 상승한 것으로, 2017년 국가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은 11.4%에서 2018년 5.7%로 감소, 관료주의 때문에는 2017년 4.5%에서 2018년 9.2%로 증가.
-지도자의 책임이 2017년 22.7%에서 2018년 9.2%로 13.5% 감소하였음.
-경제의 어려움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에 동의를 확보한 것임.

9.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가?)



-대부분 지킨다는 항목은 2017년 9.8%에서 2018년 13.8%로 소폭 상승하였고,

-대체로 지킨다는 2017년 28.8%에서 2018년 24.1%로 4.7% 감소한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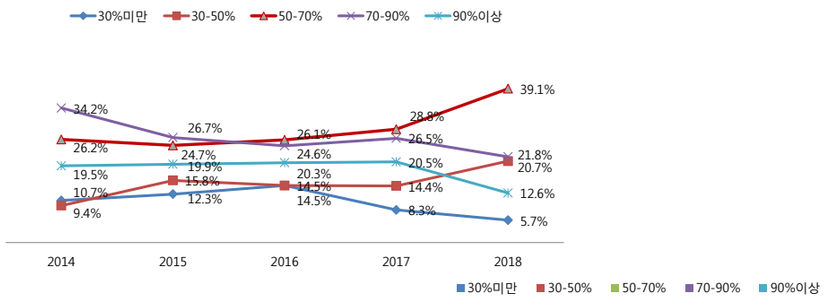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는 항목은 2017년 28.8%에서 2018년 34.5% 소폭 상승을 나타냄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는 항목은 2017년 32.6%에서 2018년 27.6%로 소폭 하락하였다.

-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활동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음을 보여줌.

10. 생활총화 출석률

(북한 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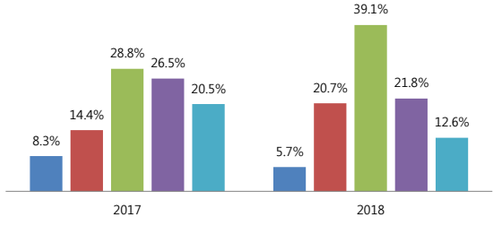


- 출석률은 30~50%에서 6.3%,

- 50~70%에서 10.3%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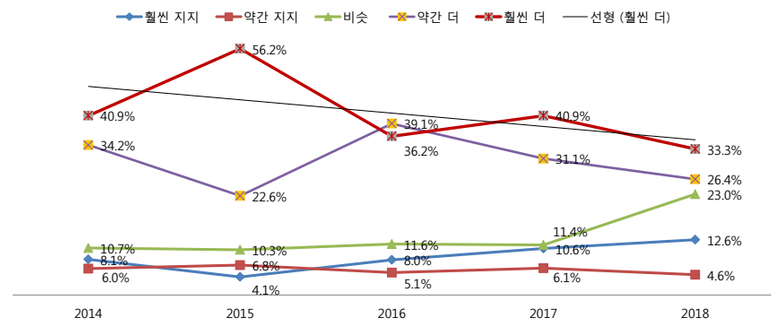
- 반면 70% 이상에서는 하락세를 보여줌.

기본적으로 생활총화 출석률은 낮지 않음.



11. 경제체제 선호도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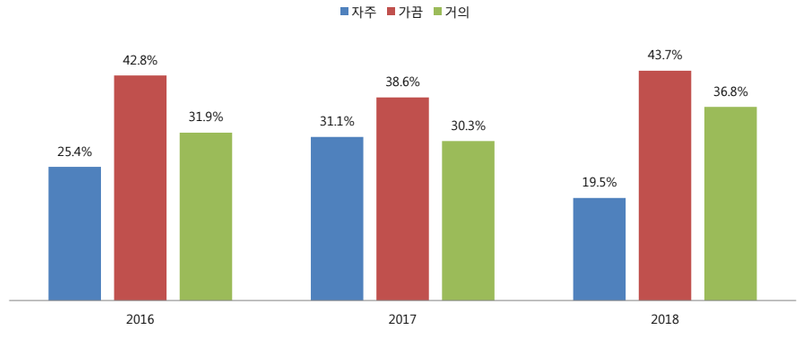
-2018년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훨씬 더 지지 + 약간 더 지지)는 59.7%로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한다(약간 더 지지 + 훨씬 더 지지) 17.2%보다 높은 수준임.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한다는 항목은 지난 해에 비하여 2018년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2017년 11.4%에서 2018년 23.0%로 상승을 나타냄.

- 다만,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는 인식은 낮아지는 추세로 시장화의 진전에 소득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것으로 풀이됨.

12. 다른 지역 방문 정도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 자주 가보았다는 응답은 2017년 31.1%에서 2018년 19.5%로 11.6%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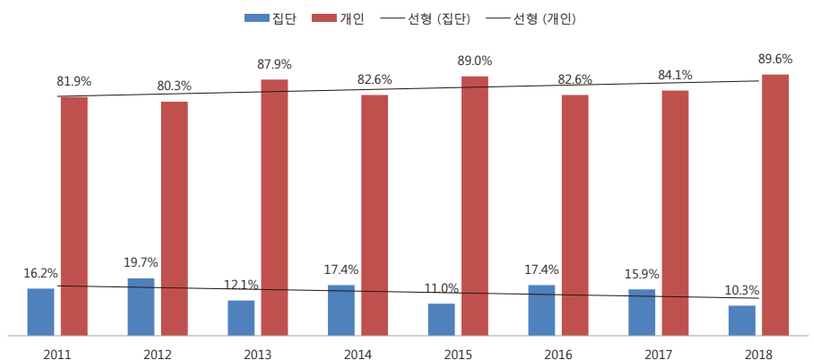
- 가끔 가보았다는 응답은 2017년 38.6%에서 2018년 43.7%로 5.1% 소폭 상승.

-거의 가보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7년에 비하여 2018년 6.5%로 소폭 상승.

-주민 이동에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여짐

13. 집단과 개인의 우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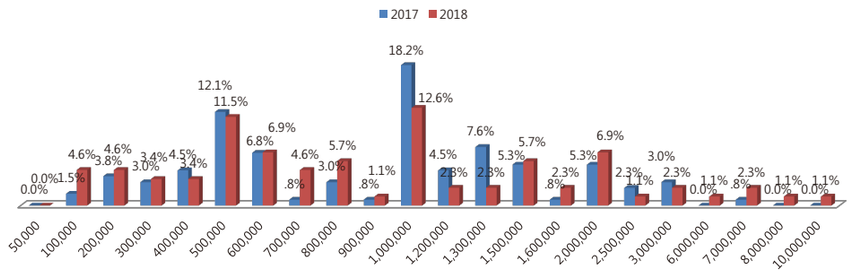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는가?)



- 개인이 훨씬 우위를 차지, 2011년 81.9%에서 98.6%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반면에 집단은 2011년 16.2%에서 2018년 10.3%로 하락세를 보임.
- 사회의 통제를 받고 생활총화 등 조직행사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을 중시하는 태도는 지속됨.

14. 월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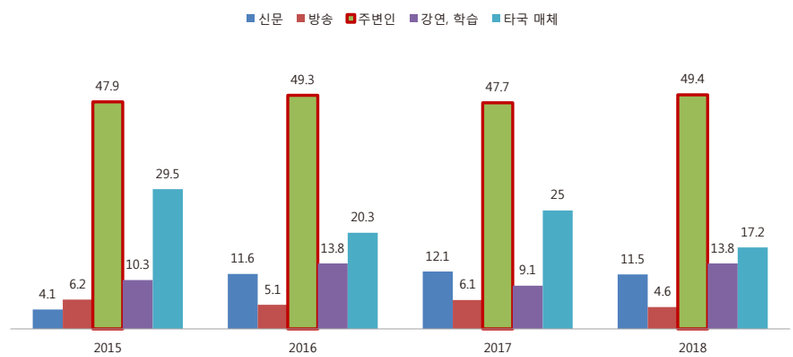
(가족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 월 소득 500,000원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017년 12.1%에서 2018년 11.5%로 소폭 하락.
- 월 소득 1,000,000원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017년 18.2%에서 2018년 12.6%으로 하락.

15. 외부소식 접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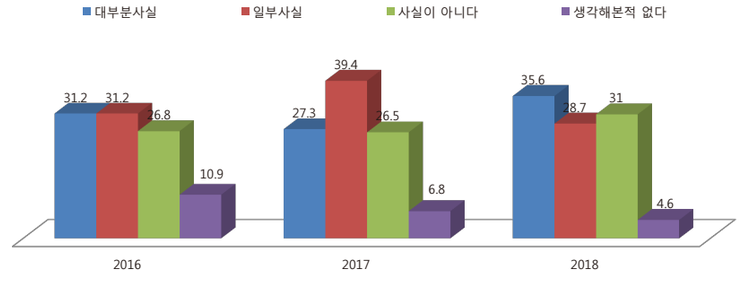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는가?)



- 주변인을 통한 외부소식의 접촉은 2017년 47.7%에서 2018년 49.4%로 소폭 증가.
- 친척, 이웃, 친구 등을 통해 바깥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임.
-강연 및 학습을 통한 접촉은 2017년 9.1%에서 2018년 13.8%로 증가.
- 다만, 타국 매체를 통한 접근은 2017년 25%에서 2018년 17.2%로 감소 추세를 보임.

16. 언론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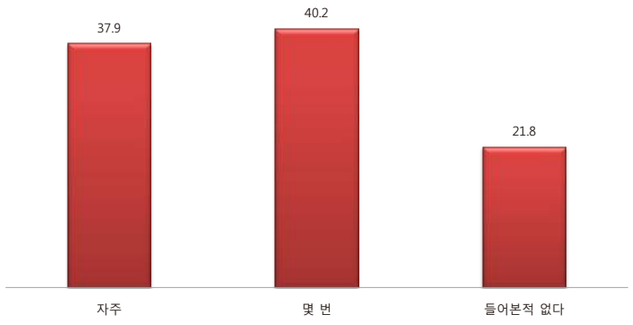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했는가?)



- 대부분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은 2017년 27.3%에서 2018년 35.6% 상승했음.
-일부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은 2017년 39.4%에서 2018년 28.7%로 10.7% 감소했음.
- 사실이 아니다고 믿는 인식은 2017년 26.5%에서 2018년 31% 상승했음.
- 생각해본적 없다는 지속적으로 하락.

17. 인권 언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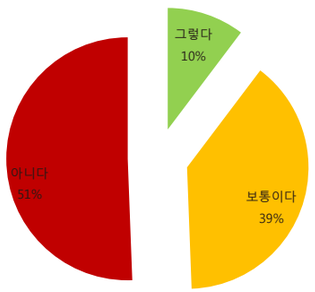
(교육기관이나 언론에서 인권(또는 인민의 권리)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나?)



- **인권 언어의 사용에 대한 질문에 78.1%가 들었다고 응답.**
- **들어본적 없다는 21.8%에 그침.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인권에 대한 용어를 접할 기회가 많았음을 알게 함.**

18. 인권 정책 평가

(북한당국(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했는가?)



-아니다는 응답이 51%,

-보통이다 39.1%로 인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북한 실태 조사(요약)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가.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전반적으로 높음.

1) 2017년에 비하여 자부심은 2017년 37.1%에서 2018년 42.5%로 5.4% 상승하였음.
2)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은 2017년 28.8%에서 2018년 20.7%로 8.1% 감소하였음.
3) 전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인식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4)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는 결과는 북한의 지도사상이라는 의미에서의 자부심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상 자체가 갖는 의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2.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가. 2017년에 비하여 2018년 김정은 지지도는 70% 이상에서 증가세를 보인다.

1) 70%에서 2017년 9.8%에서 2018년 10.3%로 소폭 상승하였음.
2) 80%에서 2017년 9.8%에서 2018년 14.9%로 상승 폭이 커졌음.
3) 90%이상에서는 2017년 16.7%에서 2018년 24.1%로 7.4% 상승하였음.
4) 김정은 지지도는 젊은 이미지와 파격적인 행보에 따른 일종의 기대심리가 투영된 것

3. 김정은 직무 평가

가. 2018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매우 잘+대체로 잘)는 48.3%(9.2%+39.1%)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대체로 잘못+매우 잘못)는 51.7%(32.2%+19.5%)보다 3.4% 낮다.

1)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017년 22.7%에서 2018년 39.1%로 16.4% 높음
2)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017년 39.4%로 높게 나온 반면, 2018년 19.5%로 감소하였다.

4. 사회통제 유지 정도

가.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의 정도가 2017년에 비하여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1) 사회통제가 별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은 2017년에 44.7%에서 2018년 58.6% 13.9% 높게 나타난 반면,
2)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017년 29.5%에서 2018년 18.4%로 11.1% 감소하였음.
3) 사회통제는 2017년 38.6%(9.1%+29.5%)에서 2018년 26.4%(8.0%+18.4%)로 12.2% 낮아졌음.

5.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 정도

가. 비판행위가 대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1) 비판행위가 약간 있다는 인식은 2017년 47.7%에서 2018년 39.1%로 8.6% 감소했음.
2) 대체로 없다는 인식은 2017년 24.2%에서 2018년 35.6%로 11.4% 증가하였음.
3) 전체적으로 비판행위가 있다는 인식이 48.3%(매우 많다 + 약간 있다)로 없다는 인식 51.7%(대체로 없다 + 전혀 없다)보다 낮게 나왔다.
4) 북한 정부에 대한 소극적인 비판 행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줌

6. 북한 정권 유지 기간 예상

가. 예상 유지기간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인식이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냄.

1) 예상 유지기간은 5~10년으로 보는 인식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데, 2017년 18.2%에서 2018년 11.5%로 나타남, 예상 유지기간을 30년 이상 보는 인식 역시 2017년 28%에서 2018년 23%로 낮아짐.
2) 10~15년으로 보는 인식은 2017년 9.1%에서 2018년 10.3%, 20~30년으로 보는 인식은 2017년 9.1%에서 2018년 11.5% 소폭 상승
3)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인식은 2017년 24.2%에서 2018년 37.9%로 큰 폭으로 상승.
4)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보다는 북한 주민이 스스로의 생존방식을 취득함에 따라 정권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7. 핵무기 보유 평가

가. 핵무기 찬성이 반대 의견 보다 훨씬 높게 나옴. 보유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줌.

1) 찬성의 경우 2017년 53.8%(매우 찬성 32.6%+다소 찬성 21.2%)에서 2018년 56.3%(매우 찬성 28.7%+다소 찬성 27.6)로 소폭 상승을 나타냄
2) 반반의 경우 2018년 소폭 하락을 나타내는데, 2017년 28.8%에서 2018년 27.6%로 1.2% 낮음.
3) 반대는 2017년 17.5%(다소 반대 6.1%+매우 반대 11.4%)에서 2018년 16.1%(다소 반대 4.6%+매우 반대 11.5%)로 감소했음.

8. 경제 악화의 원인

가. 경제적 어려움 인식은 8개 항목 중 군사비 지출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음

1) 2017년 26.5%에서 2018년 34.5%로 8% 증가하였음.
2) 지도자의 책임은 2017년 22.7%에서 2018년 9.2%로 13.5% 감소하였음.
3)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 정책의 책임은 감소한 반면, 관료주의는 상승한 것으로, 2017년 국가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은 11.4%에서 2018년 5.7%로 감소, 관료주의 때문에는 2017년 4.5%에서 2018년 9.2%로 증가.
4)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에 대하여 북한 주민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군사비 지출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정책, 간부의 관료주의 등 내부적 요인 외에도 자연재해나 미국의 제제 등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음.

9.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

가.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 생산규율을 지킨다는 항목은 변칙적으로 운영된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가 37.9%(13.8% + 24.1%)인 반면에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62.1%(34.5%+27.6%)로 낮게 나타남.
2) 대체로 지킨다는 항목은 2017년 28.8%에서 2018년 24.1%로 4.7% 감소한 반면,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는 항목은 2017년 28.5%에서 2018년 34.5% 소폭 상승을 나타냄.
3)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는 항목은 2017년 9.8%에서 2018년 13.8%로 소폭 상승하였고,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는 항목은 2017년 32.6%에서 2018년 27.6%로 소폭 하락하였다.

10. 생활총화 출석률

가. 기본적으로 생활총화 출석률은 낮지 않음.

1) 30~50%에서 2017년 14.4%에서 2018년 20.7%로 상승.
2) 50~70%에서 2017년 28.8%에서 2018년 39.1%로 상승.
3) 30% 미만, 70~90%, 90% 이상에서는 소폭 하락세를 보임.

11. 경제체제 선호도

가.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가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한다 보다 높은 수준임.

1) 2018년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훨씬 더 지지 + 약간 더 지지)는 항목은 59.7%로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한다(약간 더 지지 + 훨씬 더 지지) 17.2%보다 높은 수준임.
2)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한다는 항목은 지난 해에 비하여 2018년 오

름세를 나타내는데, 2017년 11.4%에서 2018년 23.0%로 상승을 나타냄.
3) 다만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는 인식은 2014년부터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데, 시장화의 진전에 소득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것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 다른 지역 방문 정도

가. 주민 이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여짐.

1) 자주 가보았다는 응답은 2017년 31.1%에서 2018년 19.5%로 11.6%으로 하락.
2) 가끔 가보았다는 응답은 2017년 38.6%에서 2018년 43.7%로 5.1% 상승.
3) 거의 가보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7년에 비하여 2018년 6.5% 소폭 상승.

13. 집단과 개인 우선 순위

가. 개인을 중시하는 태도는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냄.

1) 개인을 중시하는 태도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1년 81.9%에서 2018년 98.6%로 상승 추세를 보임
2) 반면에 집단은 2011년 16.2%에서 2018년 10.3% 하락세를 나타냄.
3) 사회통제 및 생활총화 참여 등의 조직행사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태도는 지속되고 있음.

14. 월 소득 수준

가. 월소득 500,000원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017년 12.1%에서 2018년 11.5% 하락

1) 월소득 1,000,000원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017년 18.2%에서 2018년 12.6%로 하락

15. 외부소식 접촉 경로

가. 주변인을 통한 외부 소식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 주변인을 통한 외부소식 접촉은 2017년 47.7%에서 2018년 49.4%로 소폭 증가.
2) 친척, 이웃, 친구 등을 통해 바깥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임.
3) 강연 및 학습을 통한 접촉은 2017년 9.1%에서 2018년 13.8%로 증가.
4) 타국 매체를 통한 접근은 2017년 25%에서 2018년 17.2%로 감소 추세.
5)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주도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16. 언론에 대한 신뢰도

가.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이 우세하였음.

1) 대부분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은 2017년 27.3%에서 2018년 35.6% 상승.
2) 일부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은 2017년 39.4%에서 2018년 28.7%로 상승.
3) 사실이 아니다고 믿는 인식은 2017년 26.5%에서 2018년 31% 상승했음.
4) 생각해 본적 없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하락.

17. 인권언어사용

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1) 인권 언어의 사용에 대한 질문에 78.1%가 들었다고 응답.
2) 들어본 적 없다는 21.8%에 그침.
3) 인권에 관한 용어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게 함.
4)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18. 북한 당국 인권 보호

가. 아니다는 응답이 51%, 보통이다 39.1%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보편적임.

1) 그렇다는 인식은 10%에 불과.
2) 인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발표 7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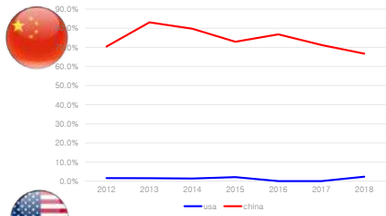
—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조동준

주변국 친밀감



중국과 가장 높은 친밀도(66.7%) ↓

한국과의 친밀도(13.8%)는 2순위 ↓

미국-일본과의 친밀도는 소폭 증가

2017년 위기 ➔ 대남 인식 악화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1.5%	1.4%	2.1%	0.0%	0.0%	2.3%
일본	0.0%	0.0%	0.7%	0.7%	0.0%	4.6%
한국	13.1%	16.2%	22.9%	15.9%	22.7%	13.8%
중국	83.1%	79.7%	72.9%	76.8%	71.2%	66.7%
러시아	2.3%	2.7%	1.4%	6.5%	6.1%	12.6%

주변국 친밀감 순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1	1	1	1	1	1
한국	2	2	2	2	2	2
러시아	3	3	3	3	3	3
미국	4	4	4	4	공동 4위	5
일본	5	5	5	5	공동 4위	4

중국>한국>러시아 순서는 유지됨.

- 중국: 10년 동안 친밀감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 전년 대비 급락
- 한국: 10년 동안 친밀감 2순위. 전년 대비 급락(8.9%)
- 러시아: 친러 인식의 급증(6.5% 증가)

주변국 친밀감-연령대

	20-30대		40대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중국	376	65.1%	292	69.5%
한국	94	16.3%	74	17.6%
러시아	37	6.4%	3	0.7%
미국	8	1.4%	3	0.7%
일본	2	0.3%	4	1.0%
결측	66		46	
소계	583	66	422	

북한 주민에게는 친밀한 국가가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결론!

연령대별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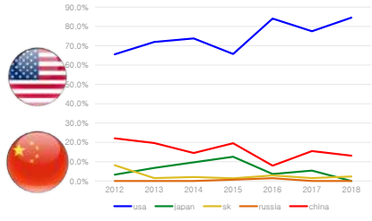
주변국 친밀감-성별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국	8	1.9%	3	0.5%
일본	6	1.5%	1	0.2%
한국	72	17.4%	96	16.1%
중국	271	65.6%	406	68.1%
러시아	20	4.8%	21	3.5%
결측	41		71	
소계	418		598	

성별 차이가 거의 없음.

북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중국에 더 호감을 가지며,
러시아에 덜 호감을 가짐 (통계적 유의미성)

평화위협국



미국이 가장 위협적이라 인식(84.5%) ↑

중국 위협이 2순위 ↓

러시아-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음

남북관계가 북한 주민의 한국발 위협에 영향 없음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72.0%	71.8%	64.4%	84.1%	75.8%	84.5%
일본	6.8%	9.4%	12.3%	3.6%	5.3%	0.0%
한국	1.5%	2.0%	1.4%	2.9%	1.5%	2.4%
중국	19.7%	14.1%	19.2%	8.0%	15.2%	13.1%
러시아	0.0%	0.0%	0.7%	1.4%	0.0%	0.0%
결측	0.0%	2.7%	2.1%	0.0%	2.3%	3.4%

평화 위협국-연령대

	20-30대		40대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국	384	67.1%	273	65.6%
일본	29	5.1%	27	6.5%
한국	13	2.2%	11	2.6%
중국	82	14.3%	60	14.4%
러시아	3	0.5%	0	0.0%
결측	72		51	
소계	583	583	422	422

북한 주민의 위협 인식은 연령대별 차이가 없음.

평화 위협국-성별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국	266	65.0%	397	67.4%
일본	24	5.9%	33	5.6%
한국	7	1.7%	18	3.1%
중국	75	18.3%	69	11.7%
러시아	1	0.2%	2	0.3%
결측	45		79	
소계	418		598	

북한 남성들이 중국발 위협을 여성보다 높게 평가함.

북한 여성들이 한국발 위협을 남성보다 높게 평가함.

통일을 위한 협조가 필요한 국가?

		2015	2016	2017	2018
중국	빈도	68	60	52	35
	백분율	48.6%	43.8%	39.4%	40.2%
미국	빈도	24	17	19	17
	백분율	17.1%	12.4%	14.4%	20.7%
러시아	빈도	8	16	11	6
	백분율	5.7%	11.7%	8.3%	7.0%
우리힘	빈도	40	44	50	27
	백분율	28.6%	32.1%	37.9%	31.0%
소계		140	137	132	87

북한의 자신감이 소폭 하락 vs. 미국의 능력 인지?

발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한 국가?

		2016	2017	2018
미국	빈도	6	8	4
	백분율	4.3%	6.1%	4.3%
일본	빈도	1	2	0
	백분율	0.7%	1.5%	0.0%
한국	빈도	60	74	44
	백분율	43.5%	56.1%	50.6%
중국	빈도	65	45	38
	백분율	47.1%	34.1%	43.7%
러시아	빈도	6	3	1
	백분율	4.3%	2.3%	1.1%
소계		138	132	87

소결

- 중국과의 친밀감이 약간 낮아지나, 여전히 강함. 2017년 위기로 인하여 한국과의 친밀감이 약화됨. 러시아에 대한 친밀감이 소폭 상승. 일본, 미국에 대한 거리감이 매우 강함.
-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 유발자로 인식함. 한국발 위협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 평가. 심지어 남북관계가 악화된 해에도 한국발 위협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음.
-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조 유지. 미국이 통일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됨. 2017년 위기를 반영한 일시적 현상인지 추후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하지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함. 북한 주민의 마음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음.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요약)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1. 주변국 친밀감

가) 2018년 조사결과 북한 주민은 중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함. 중국과의 친밀감은 소폭 하락하는 추세임 (76.8% --〉 71.2% --〉 66.7%)

나) 한국과의 친밀감이 2순위임. 전년에 비하여 하락함 (22.7%--〉 13.8%). 2017년 한반도 위기가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됨.

다) 미국, 일본, 러시아와의 친밀감이 거의 없음.

라) 주변국과의 친밀감에서 연령과 성별 차이가 없음.

2. 평화 위협

가)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유발자로 인식함. 전년에 비하여 위협인식이 악화됨 (75.8% --〉 84.5%). 2017년 한반도 위기의 원천이 미국이라는 북한 당국의 논리가 북한 주민에게 투영되었다고 추정됨.

나) 중국발 위협이 2순위임. 전년에 비하여 감소함 (15.2%--〉13.1%). 북한 주민의 안보불안감에서 미국발 위협감과 중국발 위협감이 상호 교차하는 현상이 다시 확인됨.

다) 한국발 위협을 매우 낮게 평가함. 심지어 2017년 한반도 위기국면에서도 한국발 위협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음.

3. 북한의 자신감

가)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조 유지됨. 북한 정권의 자신감이 주민들에게 투영된 듯. 핵무장의 영향이라고 추정됨. 미국으로부터 협조 필요성이 증가함. 2017년 한반도 위기를 반영한 일시적 현상인지 여부를 추후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

나) 한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고착됨. 즉,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하지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함.

발표 8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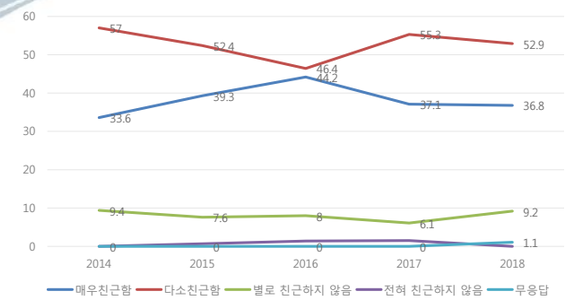
2018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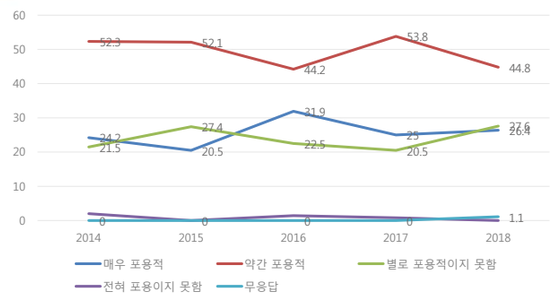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최근 5년간 조사 중 최저 (89.7%)로 나타남
- 부정적 반응도 최근 5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 (9.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주민의 포용성



-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최근 5년간 조사 중 최저 (71.2%)로 나타남
- 부정적 반응도 최근 5년 중 최대치 (27.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주민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표 (2017)

단위: %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53.1	40.8	6.1	0	100
다소 친근	9.6	69.9	19.2	1.4	1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0	0	100	0	1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	0	100	0	100
응답수(빈도)	33	71	27	1	13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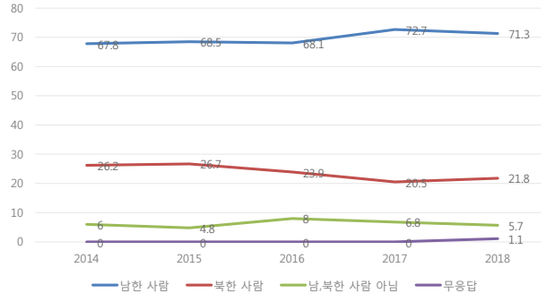
남한주민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표 (2018)

단위: %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50.0	40.6	9.4	0	100
다소 친근	13.0	52.2	34.8	0	1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12.5	25.0	62.5	0	1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	0	0	0	0
응답수(빈도)	23	39	24	0	8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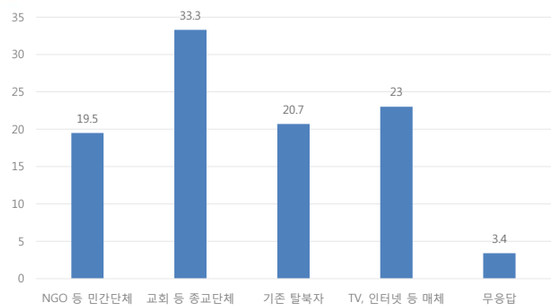
국민정체성



-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북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다소 증가한 추세
- 전반적으로는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70%내외로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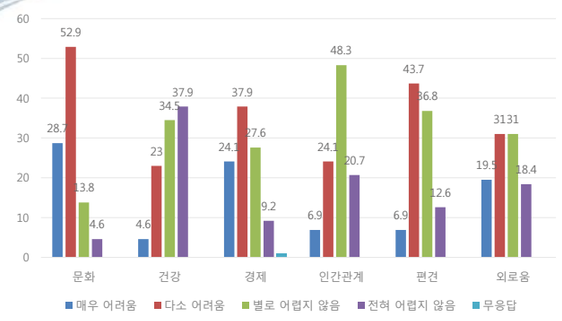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적응에 도움을 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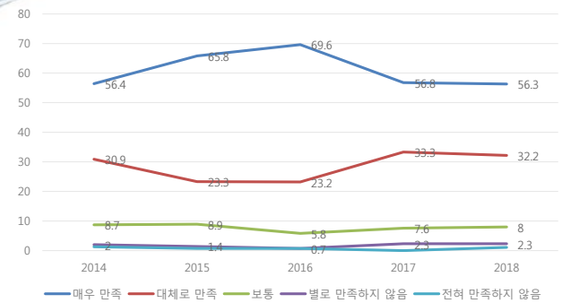
- 작년 질문에서 정부지원정책이 91.7%로 나와 정부 이외의 요인들로 선택지 변경
-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남.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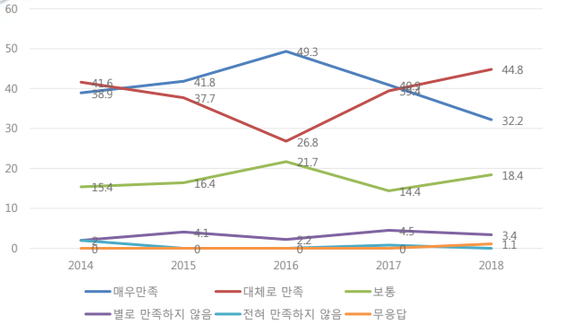
- 작년과 유사하게 문화적인 차이> 경제적인 부분>> 편견>외로움> 인간관계> 건강의 순으로 어렵다는 반응
-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어려움은 매우 크게 경험하지만 편견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크지 않음
- 대인관계에서보다는 일반적인 사회가치와 사고방식, 행동성향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됨

지원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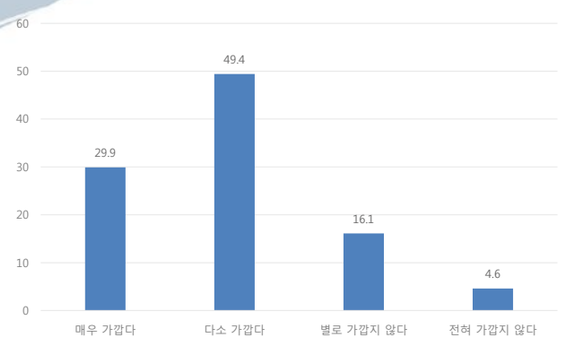
-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 최근 3년간은 약소하게나마 감소추세 (92.8%>90.1%>88.5%)
- 불만족도는 최근 3년간 조금씩 증가 추세

남한생활 만족도



- 남한 생활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 (80.3% →77%)
-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늘면서 (14.4%→18.4%) 부정적인 답변 역시 감소
- 전반적인 만족도는 최근 5년간 80%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남한생활 기대치와 현실



-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생활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는 가깝다는 반응이 80.3% (2017년 79.3%), 가깝지 않다는 반응이 20.7% (2017년 19.7%)로 작년과 매우 유사한 수치를 보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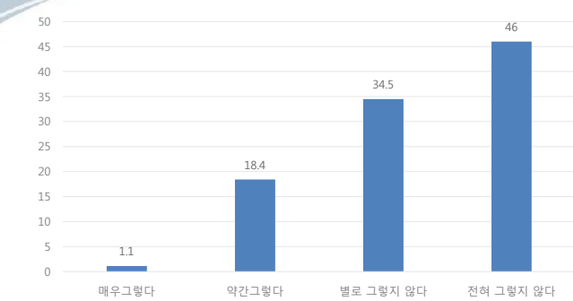
남한생활 기대치/현실과 남한생활 만족도

	매우 가까움	다소 가까움	별로 가깝지 않음	전혀 가깝지 않음	계
매우 만족	65.4	16.3	14.3	50.0	100
대체로 만족	23.1	60.5	42.9	25.0	100
보통	7.7	18.6	35.7	25.0	100
별로 만족 않음	0	4.7	7.1	0	100
응답수	26	43	14	4	87

- 남한에서의 생활이 기대했던 것과 별로 혹은 전혀 가깝지 않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남한생활에의 만족도는 각각 57.2%와 75%로 높게 나타남.
-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남한생활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해석 가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에 온 것 후회 정도 (2018 신규 문항)



-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은 19.5%, 후회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0.5%로 나타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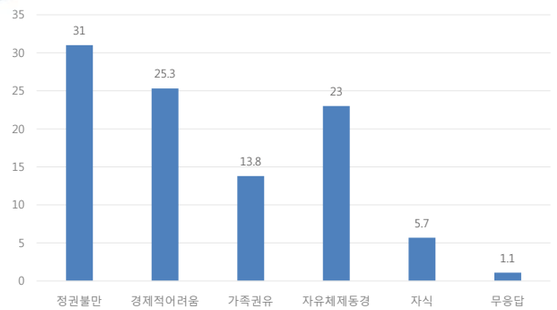
남한생활 만족도와 남한에 온 것 후회 정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 안함	계
매우 후회	0	0	0	100	100
약간 후회	6.3	37.5	43.8	12.5	100
별로 후회안함	20.0	63.3	16.7	0	100
전혀 후회안함	52.5	35.0	10.0	0	100
응답수	28	39	16	3	87

- 남한에 온 것을 약간 후회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12.5%만이 남한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응답을 함.
-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반드시 "남한생활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음. 후회의 요인을 분석할 필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탈북 결심 이유 (2018 신규 문항)



- 정권불만>경제적 어려움>자유체제 동경>가족권유>자식의 미래 순
- 정권에 대한 불만과 자유체제 동경을 합산할 때, 정치적인 이유가 54%로 경제적인 이유 25.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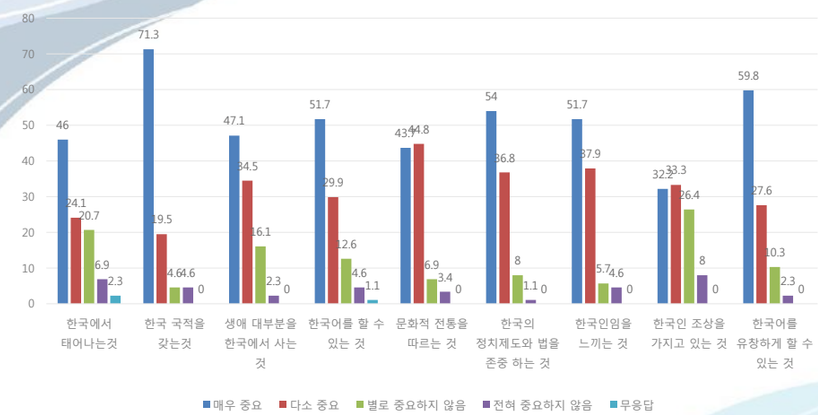
남한생활 만족도와 탈북 이유

	정권불만	경제적어려움	가족권유	자유체제	자식세대	계
매우 만족	35.7	32.1	7.1	17.9	7.1	100
대체로 만족	28.2	20.5	17.9	28.2	5.1	100
보통	25.0	25.0	18.8	18.8	6.3	100
별로 만족 안함	66.7	0	0	33.3	0	100
응답수	27	22	12	20	5	87

- 남한생활 만족도와 탈북이유를 교차분석할 때, 대체로 전반적인 탈북결심 요인의 비율이 유사하게 유지됨.
- 다만 남한생활에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응답 중에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탈북요인의 전체를 구성.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사람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 (2018년 신규 문항)



-국적습득>유창한 한국어 구사>정치와 법체제 존중이 상위 3개 요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필요한 요인을 ethnic한 것보다 civic한 부분에서 찾는 경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소결

-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긍정(매우, 다소/약간)과 부정(전혀, 별로)의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친근감: 2017년 긍정 92.4%, 2018년 긍정 89.7%
  - 포용성: 2017년 긍정 78.8%, 2018년 긍정 71.2%
- 남한주민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과 포용성의 불일치 비율은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
  - 친근하게 생각하지만 포용적이지는 않음: 2017년 26.7% → 2018년 44.2%
- 국민의식의 경우 남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이 다소 감소 (72.7%→71.3%)하고 북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이 다소 증가 (20.5%→ 21.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소결 (2)

- 적응에 도움을 준 요인으로는 정부 이외에 종교단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적응에 도움을 준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
- 남한적응에서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질문 (매우+다소 어려움).
  - 문화적 차이(81.6%)>경제적 문제(62%)>사회적 편견(50.6%)>심리적 외로움(50.5%)>인간관계(31%)>건강문제(27.6%)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과 매우 유사.
  - 일반적인 사회가치로서의 문화적 차이가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지원정책 만족도와 남한생활의 만족도는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
- 남한생활의 기대치나 남한으로 온 것에 대한 후회와 큰 상관없이 남한생활에의 만족도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 (요약)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남한적응실태

1.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긍정(매우, 다소/약간)과 부정(전혀, 별로)의 비율은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음.

가. 친근감: 2017년 긍정 92.4% → 2018년 긍정 89.7%
나. 포용성: 2017년 긍정 78.8% → 2018년 긍정 71.2%

2.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한 교차분석

가. 친근감은 추상적인 감정적인 부분으로, 남한주민의 포용성은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 두 가지 지표를 교차분석하여 친근감 긍정– 포용성 부정의 패턴을 보이는 응답(매우 친근함/별로 포용적이지 않다, 매우 친근함/전혀 포용적이지 않다)에 주목.
나. 감정적으로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서 친근하게 여겼으나 실제 생활을 통해 경험한 포용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조합으로 응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의 지표로 이해.
다. 2017년 26.7%에서 2018년 44.2%로 증가하였음. 남한생활 자체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가까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80.3%가 “가깝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 남한에서의 생활과 남한사람에게서 느끼는 현실감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

3. 국민의식의 경우 남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이 다소 감소 (72.7%→71.3%)하고 북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이 다소 증가 (20.5%→ 21.8%) 했으나 전체적으로 큰 변화폭 없이 비율이 유지됨.

4. 남한생활의 만족도는 강한 긍정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약한 긍정이 지속적으로 증가.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년대비 약간 감소하긴 했으나 최근 5년간 80% 내외로 큰 변동사항은 없는 편.

가) 남한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다른 질문들과 교차분석 했을 때, 해당 질문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의 가까운 정도, 남한에 온 것 후회 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고른 경우에도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70-80% 정도로 높게 나타남. 기대와는 다르고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해도 남한에서의 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한 질문과 보다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의 차이로 볼 것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5. 탈북결심의 요인을 묻는 질문에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이 31%, 경제적 어려움이 25.3%, 자유체제에의 동경이 23%로 나타남.

가) 일반적으로 탈북의 이유를 경제적인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비해 정치적인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나)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는 13.8%로 나타나 이른바 연쇄탈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가 주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 자식세대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는 응답은 전체 5.7%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남.

라) 탈북결심 요인과 남한생활 만족도를 교차분석했을 때, 북한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탈북한 집단에서 남한 생활 불만족도가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 (66.7%)로 나타난다는 점은 인상적이며 추가 연구의 필요가 있어 보임.

6.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만족도는 90% 내외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미세하게 만족도는 감소하고 불만족도는 증가하는 추세.

7. 남한적응에서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질문은 2017년에 추가되어 2년째 조사에 포함됨. 2017년과 유사하게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됨.

가) 문화적인 차이를 정착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으면서도 편견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적은 것으로 보아 남한사회 일반의 가치와 사고방식, 행동성향 등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해.

8. 정부이외에 남한사회 정착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으로 종교단체의 지원이 1순위로 나타남 (91.7%).

가) 종교단체의 지원 방식, 시작된 시점, 지원 기간 등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 지원 방안 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임.

9. 한국 사람이 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에 대해 각각 중요도를 매기는 질문에 있어서는 국적습득, 유창한 한국어 구사, 남한의 법과 정치제도 존중이 상위 3개 중요요인으로 지목됨.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인 조상을 가지거나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응답됨. 이를 기반하여 볼 때 한국 사람의 구성요건으로 민족적인 것보다는 시민적인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MEMO

MEMO

MEMO